

동아시아한문학연구소

2025년도 8월 학술회의 발표집

- 주제: 유림 독립운동가 연구의 단초
- 일시: 2025년 8월 8일(금) 14:00-17:00
- 장소: 성균관대학교 퇴계인문관 6층 31609호
- 주최: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한문학연구소,
성균관대학교 BK21 동아시아 고전학 미래인재 교육연구팀
- 주관: 유림 독립운동가 문헌 발굴 및 DB 구축팀

동아시아한문학연구소 2025년 8월 학술회의 프로그램

- 주제: 유림 독립운동가 연구의 단초
- 일시: 2025년 8월 8일(금) 14:00-17:00
- 장소: 성균관대학교 퇴계인문관 6층 31609호
- 주최: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한문학연구소,
성균관대학교 BK21 동아시아 고전학 미래인재 교육연구팀
- 주관: 유림 독립운동가 문헌 발굴 및 DB 구축팀

일정		발표 주제	비고
	14:00-14:10	개회사: 김영진(동아시아한문학연구소 소장)	
발표	14:10-14:30	『文巖集』에 나타난 孫厚翼의 독립운동 관련 교유 인맥 연구 발표자: 김용태(성균관대 한문학과)	사회 김종민 (성균관대)
	14:30-14:50	壽春 李敏應의 생애와 활동 발표자: 방현아(동아시아한문학연구소)	
	14:50-15:00	휴식	
	15:00-15:20	心汕 趙成珉의 독립활동 면모와 의의 고찰 발표자: 이은영(동아시아한문학연구소)	
	15:20-15:40	恥齋 李範世와 독립운동 인맥 발표자: 김진균(동아시아한문학연구소)	
	15:40-16:00	휴식	
종합 토론	16:00-17:00	토론자: 강운정(경국대), 심철기(한남대), 정은주(영남대), 조상우(단국대)	좌장 이희목 (성균관대)
	17:00	폐회	

| 목 차 |

□ 기획 주제: 유림 독립운동가 연구의 단초 『文巖集』에 나타난 孫厚翼의 독립운동 관련 교유 인맥 연구 발표자: 김용태(성균관대 한문학과)	1
壽春 李敏應의 생애와 활동 발표자: 방현아(동아시아한문학연구소)	5
心汕 趙成珉의 독립활동 면모와 의의 고찰 발표자: 이은영(동아시아한문학연구소)	33
恥齋 李範世와 독립운동 인맥 발표자: 김진균(동아시아한문학연구소)	53
□ 종합 토론 강윤정(경국대), 심철기(한남대), 정은주(영남대), 조상우(단국대)	

이 발표집은 2024년도 정부(교육부)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출판되었음.(NRF2024S1A5C2A02046232)

This journal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MOE).

□ 기획 주제 발표 1

『文巖集』에 나타난 孫厚翼의
독립운동 관련 교유 인맥 연구

김용태(성균관대)

<자료 별도>

□ 기획 주제 토론 1

「『文巖集』에 나타난 孫厚翼의
독립운동 관련 교유 인맥 연구」에 대한 토론문

강윤정(경국대)

<별지 첨부>

壽春 李敏應의 생애와 활동 － 유림 독립운동가 발굴을 위한 모색과 시도에 준하여 －

방현아(동아시아한문학연구소)

1. 머리말
 2. 생애와 교육
 3. 활동 및 사업
 4. 맺음말
- 附. 이민응 생애의 간략연표

1. 머리말

본 논문은 유림 독립운동가 발굴을 위한 모색과 시도의 일환으로 壽春 李敏應(1876~1955)의 생애와 활동을 고찰한 것이다. 수춘에 대한 기존의 평가는 그가 일제강점기에 빈민 구제, 무지 계몽에 앞장선 여주의 자선사업가로 noblesse oblige를 실천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가 조직한 善隣會, 畿東保隣社의 활동과 만주 지역에서의 정미소 경영, 滿洲移住組合과 模範村의 구상, 성균관대학의 문교부 인가를 위해 재단에 선린회 재산을 전액 기부한 일들은 귀족의 의무와 자선을 실천한 대표 사례로 인정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독립운동사는 정의에 헌신했으나 잊혀진 무사들로 가득 차 있다. 현재 국가 보훈부에서 예우 보상하는 독립유공자의 대상은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로 건국훈장, 건국포장, 대통령 표창을 받은 분들이다.¹⁾ 일제의 국권 침탈(1895년)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독립운동 공적이 있는 분 중에서 그 공적이 원전자료에서 확인됨을 원칙으로 하고 사망 시까지 행적에 문제가 없어야 함을 심사기준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국권 회복을 위한 활동이 혹여 부정적으로 평가된 인물과의 교류로 인해 외면되는 경우가 있고, 작은 오점으로 인해 삶의 전부가 부정되는 일도 있다.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사람을 살리는 일

1) 建國勳章은 대한민국의 건국과 국가의 기초를 공고히 하는 데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대한민국장, 대통령장, 독립장, 애국장, 애족장의 5등급으로 세분화되었다. 이승만, 이시영, 김좌진, 안중근, 윤봉길, 김구, 김창숙 등이 받았다.[상훈법 제11조] 건국포장은 대한민국을 세우고 나라의 근본을 튼튼히 하는 데에 헌신, 진력하여 그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한다.[상훈법 제20조]

에 앞장서고 그것이 조국의 독립을 위한 것이라면 우대받아야 할 일임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독립운동가를 발굴하고 유공자로 지정하는 데 있어 실질적으로 고려되는 것은 무엇일까.

본고는 이를 염두에 두고 이민웅이라는 인물의 고찰을 시작하였다. 그 이유는 그가 여주의 자선사업가로 알려진 기존의 평가 외에도 애국지사로서의 다양한 면모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수춘은 선조의 9번째 아들인 慶昌君 李珣의 후손으로 춘천에서 태어났다. 화서학과 유증교²⁾의 문하에 들어가 14세부터 유인석(1842~1915)에게 5년여의 기간을 수학하였으며, 19세(1894)에 과거에 급제하였다. 주사, 상의사주사, 중정원주사, 학부참서 등을 역임하며 1901년 김택영이 『연암집』 속집을 발행할 때 參訂을 맡고 學部 서기관외 국문연구소 위원으로 「國文研究議定案」에 서명하는 등 학문에 뜻을 둔 청년이었다.

경술국치 이후 나라가 위기를 당하자 1911년 소남, 대남 등과 함께 만주의 접리수촌으로 들어가 한인들에게 토지와 자금을 제공하였고, 고국으로 돌아온 1920년대에는 여주에서 자선사업을 통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힘쓰는 동시에 간도의 東興校에 기부금을 모으는데 동참하였다. 1926년, 일본으로 몰래 팔려나가게 된 『華東綱目』 목판을 거금을 들여 회수한 일, 같은 해 『오륜원리』, 『오륜원리언해』³⁾를 출간하여 어려운 시기에 유학의 기본윤리를 대중에게 제시한 일은 성리학적 사고에 기반하고 배운 바를 실천한 결과이다. 1930년대에 들어서 만주이주조합을 설립하여 만주에서 模範村을 실현코자 하여 온 가족이 만주로 이주하였다. 그러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이후 孔鎭學의 주선으로 개성에 거주하게 된 수춘은 1937년에 孔聖學, 林河永, 姜永直, 宋榮龜와 함께 화양동, 속리산, 부여를 여행하였다. 그때 남긴 『湖西紀征』은 충시열의 숭앙, 존화양의 사상을 보여주고 있다. 해방 후에는 성균관 대학의 문교부 인가를 위해 선린회 재산을 모두 기부하였다.⁴⁾

함께 이항로의 학문을 계승한 종친 李昭應⁵⁾, 李晚應⁶⁾, 李景應⁷⁾은 유인석과 함께 춘천지역의 의병으로 활약한 인물들로 이소응은 1962년에 독립장을 받고, 이만응은 2002년에 애족장을, 이경응은 2000년에 전국훈장 애족장을 받았다. 의병 활동 이후 이만응이 어려움을 처했을 때 이민웅은 그가 여주에서 살도록 집을 마련해 주기도 하였다. 이처럼 수춘의 활동은 여주, 만주, 개성을 넘나들며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고자 일관된 保民, 救民을 전개하였지만 그

2) 柳重教(1832~1893) : 본관은高興, 초명은 孟教. 자는 穉程, 호는 省齋, 『성재집』이 있다.

3) 이 책의 발행자는 玄公廉, 인쇄자는 沈禹澤, 인쇄소는 喜文館印刷所이다. 玄公廉은 일제강점기 전문출판업자로 구한말 역사학자인 玄采의 아들이다.

4) 李相九(1997), 6, 12, 46, 62면. 1946년 9월 25일 정식 인가를 받을 당시 재단 이사장은 金昌淑, 부이사장은 이민웅이었다.

5) 李昭應(1852~1930)의 본관은 全州, 자는 敬器, 호는 習齋, 思靖齋, 遼東客, 東岳居士 등이 있다. 李宜愼, 李直愼으로 개명하였다. 慶昌君 李珣의 후손으로 조부는 李淵初, 부친은 李道裁이다.

6) 李晚應(1857, 9, 17~1938, 7, 20) : 본적은 여주. 화서학파의 柳重教의 문하에서 수학하고 백형인 直軒 李晉應의 훈도를 받아 춘추대의에 입각한 존화양이론과 위정척사 사상을 실천하는데 진력하였다. 1896년 1월 사촌형 이소응이 의병을 일으켜 春川義陣을 조직하자 亞將으로 활동하였다. 전투에서 패한 후 가족과 여주 금사면 주녹리 산중에 은거하다 6촌 동생 이민웅이 여주시 대신면 보통1리에 집을 마련해주어 曹錫雨의 구택으로 이사하여 후진 양성에 진력하며 살았다. 『家庭訓行錄』이 있다. 여주박물관 학술총서(2020), 84~85면.

7) 李景應(1865, 2, 27~1947, 2, 28)은 1896년 춘천에서 의병장 李昭應의 뒤를 이어 李晉應의 의진을 이끌 때 參陣하였고 이진응이 순국한 후 의병장으로 의진을 이끌다가 柳麟錫義陣에 합류하여 활동하였다. 저서 『乙未義兵實蹟』이 있다. 고민정(2007), 75~106면.

의 행적은 여전히 희미하다.

2. 생애와 교유

(1) 생애

李敏應(1876, 2, 28~1955, 3, 4)의 본관은全州, 자는 敬行, 호는 壽春, 耻齋(恥齋)로 강원도 춘성군 남면에서 태어났다. 壽春은 춘천의 옛 이름으로 당시 그를 부르는 고유명사처럼 쓰였던 것 같다. 慶昌君 李珣(1596~1644)의 후손으로 조부는 규장각부제학을 지낸 李源初(1809, 3, 18~1882, 8, 2), 부친은 敦寧僉知를 지낸 李道相⁸⁾, 모친은 남양홍씨 洪來燮의 딸(1835~?)이다. 형 李普應(1862~?)은 主事를 지냈으며, 두 여동생은 각각 李俶, 李愚萬과 혼인하였다. 이 민응의 부친은 여주로 이전하기 전, 춘천 수동리에서 연간 3천 석을 수확하는 대지주였으며, 이천과 여주 일대에도 연간 7~8천 석을 수확하는 방대한 농경지를 소유했을 뿐 아니라 제천, 청주, 양평 등지에도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⁹⁾

이민응은 10세 때 참봉 파평윤씨 尹泰吉의 딸(1877, 2, 10~?)과 혼인하여 載重, 載正, 載聖을 낳았으며, 그들에게 신학문을 가르치지 않고 오직 유학의 가르침에 전념하였다.¹⁰⁾ 재정은 伯氏인 普應에게 양자를 갔다. 이민응도 15세(1890)에 李道根¹¹⁾의 계자가 되었다.¹²⁾ 14세부터 1894년까지 유인석의 문하에서 학문을 수학하였다. 춘천외병에 참가한 이소응, 이만응, 이경용 등과는 육촌지간으로¹³⁾ 이소응은 유인석과 함께 유종교를 철저히 수종하였고, 유종교의 아들 柳毅錫¹⁴⁾이 이소응의 여동생과 혼인하여 이소응과 유종교는 사돈지간이 되었다. 이민응이 19세가 되던 해에 이소응은 유인석에게 이민응의 관계를 위한 字說을 부탁하였다.

8) 李道相(1838, 10, 4~1904, 4, 5)의 자는 元弼, 부인은 남양홍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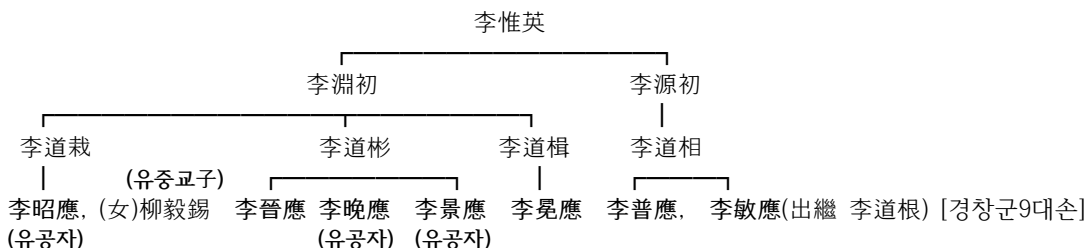
9) 이민응의 선조는 상당한 재력가로 서울에서 경기 광주 하남으로 옮겨 세거하였고 그 일파가 강원도 춘성군 남면으로 이거했던 것인데, 이민응이 여주로 오기 전에도 여주, 이천에 친척들이 세거하였다.

10) 이종립(2000), 32면.

11) 李道根(1846, 7, 27~1879, 10, 26)의 부인은 청주한씨 韓寅赫의 딸(1846, 3, 5~1900, 12, 24)이다.

12) 『승정원일기』, 1890년 1월 14일 기사에 이민응을 李道根의 후사로 세울 것을 청하는 예조의 계가 있다. “又以禮曹言啓曰：即接前都正李道權單子，則以爲六寸兄道根，嫡妾俱無子，以其同姓十六寸弟道相第二子敏應，欲爲繼後，兩家諸族，相議完定，而養家父母，俱爲作故，拘於常規，不得循例禮斜，依法典草記稟處事呈單矣。凡係繼宗立後，兩邊與受，明有可據而不得登聞者，許令該曹論理草記事，載在法典，而門長李道權單辭既如此，李道相第二子敏應，立爲李道根之後，何如？傳曰：允。”

13) 이민응의 가계는 『璿源續譜』 3을 참고하였다.



14) 柳毅錫(1857~1933)의 자는 遠汝, 호는 立軒·愼菴. 부친은 유종교, 이소응의 妹弟이다.

지난 경인년(1890) 늦가을에 내 친구 습재 이소응이 종가의 맏아들로서 그의 육촌 아우인 민응의 字인 敬行의 관례를 행하고, 나[-유인석]로 하여금 그 예를 돕게 했다. 그 자설을 나의 종숙부인 성재 선생[-유종교]에게 청하고자 하였는데 그가 생존하는 날까지 그 일을 하지 못해 이에 다시 나에게 부탁의 말을 청한 것이다. 내가 부족하고 문장력이 짧아서 진실로 감히 응하지 않고 있었는데, 그 의리를 생각해 끝내 사양할 수 없어서 드디어 자설을 지어주었다.¹⁵⁾

본래는 이민응의 자설을 유종교에게 청하고자 하였으나 유종교가 돌아가시어 유인석이 대신 맡았다는 것이다. 敬行에 대한 字說은 이민응의 ‘敏’과 관련이 있다. 유인석은 공자의 “군자는 말에 어눌하고 행동에서 민첩하다.[君子欲訥於言而敏於行]”는 뜻을 따르고 주자의 “경에 거하여 그 근본을 세우고 이치를 연구하여 그 아는 바를 지극히 하고 몸을 반성하여 그 실재를 실천한다.[居敬以立其本, 窮理以致其知, 反躬以踐其實.]”는 내용을 원용하였다.¹⁶⁾ 이민응은 말보다 실천을 강조하며 민첩하여 늘 敬에 근거하는 군자의 삶을 지향하였다. 그는 민첩하고 외유내강형의 어진 성품이었으며 6척 이상의 키에 우람한 체격이었다고 한다.¹⁷⁾

19세(1894)에 과거에 급제한 후, 主事, 尙衣司主事, 宗正院主事, 學部の 參書 등을 지냈다. 25세(1900)에는 중학교 교관에 임용되어 학생을 가르쳤다. 이듬해 김택영이 『연암집』 속집을 인행할 때 편찬과 교정을 金澤榮과 金敎獻이 맡고, 이민응이 參訂을 하였다. 또한, 1903년 정월에 고종이 『문헌비고』를 續刊하기로 하고, 7월 25일 萬壽聖節에 찬집소에서 집필하는 근로를 생각하여 일만 전을 하사하여 연회를 베풀었을 때 이민응도 참석하였다.¹⁸⁾ 1905년에 정3품이 되고 1906년 6월 8일 3년연한의 官立漢語學校를 卒業하였으니 중국어도 능통하였을 것으로 보인다.¹⁹⁾ 1907년 1월에 정3품과 중추원 부찬의로 임명되고 이해 趙相周(1650~1718)의 신도비 글씨를 썼다. 7월에 학부 서기관이 되었고, 이듬해 5월 6일 國文研究所²⁰⁾ 위원으로 임명되어 한글을 공용문으로 채택하고 한글 교과서를 간행하기 위한 통일된 正書法을 제정

15) 柳麟錫, 『穀菴集』 卷40, <雜著>, 「李敏應字說」, “往在庚寅之季秋, 吾友習齋李公昭應, 自以宗子, 冠其再從弟敏應字敬行者, 俾麟錫相其禮矣. 欲請其爲字說於吾從叔父省齋先生, 而未有以及於在世之日, 則乃又令麟錫有一言焉. 人劣文短, 固不敢承膺, 而其義則有不可終辭者, 遂爲之說.”

16) 柳麟錫, 『穀菴集』 卷40, <雜著>, 「李敏應字說」, “善乎其所以名而字之也, 孔子曰: 君子欲訥於言而敏於行, 夫言行, 皆君子之所重, 而言欲其訥, 行欲其敏者, 盖以言常有餘, 行常不足, 人之所通患也. 故必其言之訥而行之敏焉. 然後可得相顧而爲慥慥之君子矣. 孔子之爲此訓, 其勉人最切, 而人之欲爲君子者, 其最宜服膺於此訓也. 然孔子之世, 去古未遠, 人皆淳質, 務於行而已. 有是勉矣. 矧今叔季之世, 人皆偷薄, 唯其言之是尚而不知務行, 則又惡可已於勉乎是也. 今以是錫名與字而勉之, 可謂急所當勉而其欲使之爲君子也必矣. 不亦善乎, 然嘗聞之, 人之勉乎行, 不可徒爲, 必先以知, 而又以敬統持之, 乃可爲方, 此不易之理也. 今其爲字, 兼言乎敬, 已能得統持之意矣. 其於知也, 又不可以不深求其說而并勉也. 盖敬與知行三者, 如綱目相乘, 輪翼相將, 不可偏廢也. 故朱門有成訓, 曰: 居敬以立其本, 窮理以致其知, 力行以踐其實, 此又爲學之全法也 …(中略)… 永曆五甲午(1894)之季冬, 瀛洲柳麟錫言.”

17) 여주군사편찬위원회(2005), 622면.

18) 金澤榮의 『韶濩堂集』 卷5, 「萬壽聖節, 弘文館纂輯所, 賜宴記, 癸卯(1903)」, 당시 모인 사람은 당상관 太醫院卿 朴容大, 會計院卿 李載崑과 金錫圭, 위원으로 승지 金敎獻, 朴始淳 李愚萬, 참서관 尹喜求, 李敏應, 金思重, 權輔相과 김택영, 홍문관의 관원은 시독관 趙性翼, 鄭顯載, 任百瑛 등이다.

19) 官立漢語學校: 1897년 서울에 설립된 관립 중국어학교로 수업연한은 3년이다.[관원이력 1책, 8]

20) 국문연구소: 1907년 7월에 학부 안에 설치한 국문 연구 기관. 주시경, 지석영 등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약 3년 동안 국어 통일에 관한 토의를 하였다.

해 『국문연구』를 작성할 때 참여하였다. 당시 그는 서울 계동에 거주한 것으로 확인된다.²¹⁾ 1909년 12월 27일까지 국문연구소 연구위원들이 국어의 음운과 맞춤법에 관한 10개 議題를 연구하고 23회의 회의를 거쳐 1909년 12월 28일에 제출한 보고서에도 간사로 서명하였다.²²⁾

이처럼 학문연구와 국문연구에 매진하던 그의 삶은 1910년 경술국치 이후 격변하였다. 잠시 경남의 기장군수(1911.3.14~5.26)를 거쳐 양평군 西始面長(1913.6.23 사임)을 지내긴 했지만 1911년 대눌, 소눌을 따라 접리수로 이동하여 많은 자금을 들여 밭을 벌리고 농사를 지어 살 수 있도록 돕는 일에 치중하였다. 1921년 주거를 이전하여 여주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고 선린회(1924)와 기동보린사(1927년)를 설립하였다. 이민웅은 여주에서 선린회를 설립하는 기부활동을 하는 동시에 간도의 東興中學校에 기부금을 모아 냈는데, 이 일은 1924년 6월 5일자 조선일보 신문에 기부한 사람의 명단과 함께 기사가 실리기도 했다.²³⁾ 1926년 9월 28일 군자금을 구하러 다니던 李壽興(1905~1929)의 요청으로 군자금을 제공하였다는 혐의로 일본 사법경찰의 심문을 받은 적도 있었다.²⁴⁾ 1927년 봉천, 대련에 남만공사를 설립하여 정미소를 경영한 것으로 보아 그의 만주에서의 활동은 일부 지속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진 1, 2〉 개성시 윤학정, 회갑사진(1937년 2월 28일), 『여주문화』 제8호, 38면, 재인용

이민웅은 사업의 고전으로 1932년 무순남만공사 정미소 경영자로 만주이주조합을 설립하

21) 당시 그의 주소는 漢城 北署 陽德坊 桂洞契 桂洞 16統 3戶로 되어있다.[관원이력 1책, 8]

22) 국문연구소, 『國文研究議定案』 1책, 일본 동경대학 오구라문고.

23) 동흥중학교는 1921년 중국 길림성 간도 용정에 설립된 민족계 사립 중등교육기관이다. 1921년 10월 1일 천도교신자 최익룡이 용정에 설립했던 동흥소학에 병설된 중학강습반을 승격해 만들어졌다. 학생들은 연변 각 지역에서 온 천도교인 자제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었고, 일부는 소련 연해주와 조선, 남만주 및 북만주에서 오기도 하였다.

24) 한국 근대 사료 DB, <記錄追送ノ件>, <證人 李敏應 訪問調書> 등의 기록 참조. 문서철명: 檢察事務에 關한 記錄 3, 1926년 12월 4일 문서인 利警司 제1390호를 보면 <時局標榜強盜 犯人逮捕에 關한 件>으로 “右者警察犯處罰規則違反ニ依リ拘留取調中別紙意見書◆記載ノ犯罪認知シ身柄ハ一件記錄ト共ニ一二月三日驪州支廳檢事分局ニ送致候條此段及報告通報候也.”라는 내용으로 조사를 받았다. 이수흥은 이민웅이 운영하는 식산공사를 털어 군자금을 징발해 외국에서 총기를 대량으로 구매한 후 대대적인 활동을 도모하려 했으나 이민웅이 민족의 의리를 알지 못해 끝내 응하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다. 기존평가는 이 부분을 부정적 시각으로 보기도 하나 박환은 진실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중한 평가가 요망된다 하였다. 조소양(2019), 304면; 박환(2010), 196면, 주78).

여 사람들을 모아 북만주에 모범촌을 건립하고자 계획하고 온 가족을 데리고 만주로 들어갔다. 그러나 왜정의 감시와 마적단의 횡포가 심해 아들까지 인질로 납치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거금을 빼앗기면서 다시 조국으로 돌아왔다. 이때 개성출신 孔鎭學의 주선으로 개성에 거처를 마련하고 문방구점을 차렸으나 실패를 거듭하고 2년 만에 사업을 접었다. 1937년 2월 개성 운학정에서 회갑사전을 찍었으며 1938년 다시 여주로 돌아가 서울과 여주를 오가며 지냈다.

그가 1937년 9월 孔聖學, 林河永, 姜永直, 宋榮龜 등 5인과 개성을 출발하여 화양동, 속리산, 부여를 여행하고 지은 시 190수를 모아 『湖西紀征』²⁵⁾을 엮은 일은 여주로 돌아가기 전의 일이었다. 그의 작품은 다음 장에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한다.

1941년 아들을 잃은 후 성북구에 집을 마련하고 임시 거처를 왕래하며 1943년 세계 제2차 대전이 발발하자 국내에 소개령이 내려지면서 가족은 서울과 여주에 두고 혼자 강원 홍원 북방면 역전평리에 거주하는 재종제 복음이 있는 곳에서 피난을 가 2년간 은둔하며 주민에게 서당 글방공부를 가르치며 소일하였다. 1945년 해방 후 종로 명륜동1가로 상경, 1946~1947년까지 성균관대학 재단법인에 참여하여 정인보, 주시경, 김동순과 교류하였다. 정인보는 매월 두 차례씩 그가 사는 여주 금반형에 들렀으며 『유림운동 50년사』에는 성균관 초대 부이사장 이민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이민웅은 유도회에서 성균관의 아헌관을 지내고 고문으로 추대되는 등 말년까지 교육에 힘썼으나 1955년 3월 4일 교통사고로 80세로 생애를 마쳤다. 그의 묘는 경기도 시흥군 서면 하안동 산88-1에 있다.

(2) 교유와 학문 -화서학과 그리고 개성

이민웅의 교유를 알 수 있는 자료가 많지는 않으나 화서학과 문인들과 개성 문인들과의 교류 흔적이 남아있다. 특히 화서학과 문인 중에 晚樂軒 張錫寅(1863~1938)과는 20여 년간 교유하였다. 장석인은 문경을 떠나 이민웅이 있는 여주 외사리 금반형 지역에 세거하게 되었고 이민웅의 사업에도 함께하였다.²⁶⁾ 이민웅은 장석인의 묘지명과 그 부인의 회갑을 축하하는 시를 지어줄 정도로 매우 두터운 신뢰가 있었으며, 그의 묘지명을 써 주었다.²⁷⁾

1926년, 일본으로 몰래 팔려나가게 된 『華東綱目』 목판을 거금을 들여 회수하고, 같은 해 『오륜원리』, 『오륜원리언해』를 출간하여 어려운 시기에 유학의 기본윤리를 대중화하고자 하는 등 유자로서의 면모를 보인 것은 그의 학문에 바탕을 둔 소치였다. 『화동강목』은 화서 李恒老(1792~1868)의 제자인 金平默(1819~1891)과 유종교가 송·원대와 고려의 전적을 모아 기록한 삼강오륜의 강목으로, 그들의 위정척사와 소중화 의식이 반영되었고 유인석에 의해 춘천에서 간행된 것이다.²⁸⁾

25) 이상주(2017). 이 시집에는 모두 7일 동안 지은 190수가 수록되어 있다.

26) 장석인은 이항로에서 錦溪 李根元으로 이어지는 학맥을 이었다. 문복희(2023); 장성구(2013), 149~155면.

27) 이민웅, 「謹賀張晚樂軒夫人壽筵韻 又」, “先生世德擅堂堂, 元積山中壽富康. 千里家遷兒揖讓, 四條鄉約善柔剛. 公藝忍字傳真訣, 天師仙術守一疆. 皓月將圓黃菊在, 斑衣隊隊奉華觴.”(장석인, 『만락헌유고』 권3, <壽宴詩帖>; 이민웅, 「墓誌銘」(장석인, 『만락헌유고』 권2)

또 매천 황현, 창강 김택영(1850~1927)과도 교유하였는데, 황현이 김택영에게 보낸 편지에 이민웅이 황현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얼마 전 참서 이민웅의 편지를 받았는데, 3월에 저[弟]의 편지를 창강에게 부쳤다고만 하고 졸고를 부쳤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그 편지는 제가 지난가을에 쓴 것인데, 도착하였습니까? 선친의 묘지(墓誌)와 저를 위한 전(傳)을 쓰는 일 중 하나를 택하겠다고 하셨는데, 제 도리에 서는 차라리 전이 없을지언정 묘지가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즉 형의 붓의 근원이 늙을수록 더욱 도도하시니, 어찌 끝없는 저의 바람을 다 충족시켜 주시지 않겠습니까.²⁹⁾

위의 편지 내용으로 황현이 김택영에게 선친의 묘지명을 부탁하였으며 그 일에 이민웅이 간여하여 도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민웅과 김택영은 『연암집』 속집을 인행할 때 함께 일을 한 외에도 1913년 김택영이 중국에 거주할 때 구례의 雲樞 王粹煥(1865~1926)에게 보낸 간찰에 이민웅의 이름이 언급되었다.³⁰⁾ 이 편지에는 崔子和에게 책을 보냈으며 아우가 漢城에 가서 참서 이민웅을 만나 의논하면 좋은 방도가 있을 것이라는 내용, 자신의 원고와 최모가 가지고 있는 『매천집』 속집에 대한 언급들이 기술되어 있다. 또한, 菴堂 金公植(1873~?)과 恥齋 李範世(1874~1940)를 방문하여 雪·月·梅를 소재로 함께 시를 짓기도 했다.³¹⁾

그의 문학적 감수성은 개성에서 만난 春圃 孔聖學과 주변 인물들과 기행 중 지은 한시로 알 수 있다. 공석학은 김택영으로부터 한학을 배웠다. 1937년 9월 이민웅, 공석학, 東懷 林河永, 松石 姜永直, 和岡 宋榮龜와 개성을 출발하여 화양동, 속리산, 부여를 여행하고 『湖西紀征』에 190수를 남겼다. 동호인끼리 화양구곡을 탐방하고 화양구곡시를 지은 사례가 없으며 이 시들은 존주대의의식을 계승 발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³²⁾ 이민웅의 작품은 29제, 38수로 여정을 순서로 서로 운을 정하여 함께 차운하였다. 「華陽九曲吟」은 모두 10수로 擎天壁, 雲影潭, 泣弓岩, 金沙潭, 瞻星臺, 凌雲臺, 鶴巢臺, 臥龍岩, 巴串의 9곡을 읊었으며 그 첫수이다.

우암선생이 화양동에 들어가
춘추 일부를 등불 하나로 향기롭게 했네
남은 실마리 지금 어느 곳에 있는가
구곡을 찾아 길게 노래 부르네

尤菴夫子入華陽
一部春秋一炷香
遺緒如今何處在
行尋九曲發歌長³³⁾

화양구곡은 수암 권상하(1641~1721)가 화양동의 화양계곡에 아홉 골짜기를 보고 九曲이라

28) 『화동강목』은 현재 자양영당에 보존되어 있다. 왜구에 팔리게 되자 이민웅은 閔丙承과 문화재 밀매를 막기 위해 금전 수만량을 출력하여 여주로 옮겼다. 이종립(2000), 29면; 최용철(2016).

29) 黃鉉, 『梅泉續集』 제1권, <書>, 「與金滄江」, “頃得李參書敏應書, 謂以三月付弟書, 而不言拙稿之寄否. 書則弟於昨秋所裁留者也. 果能到達耶. 先人墓誌及爲我立傳, 將擇一於斯云. 在吾道理, 寧無傳, 不可無誌, 然兄筆源老愈滔滔, 獨不能中吾隴蜀之望耶.”

30) 김택영이 왕수환에게 보낸 간찰, 독립기념관소장(자료번호, 1-018694-010)

31) 이범세, 『耻齋集』, 「金菴堂公植, 李壽春敏應, 月夜見訪, 仍分雪月梅三字賦各體, 余得梅字賦五排」.

32) 이상주(2017), 238~239면.

33) 이민웅, 「華陽九曲吟」 1수, 『湖西紀征』, 한성도서주식회사, 1938.

명명하였으며, 그 이름은 조선 성리학의 대가인 우암 송시열(1607~1689)이 이곳에 은거하면서 지었다고 전해진다. 2구의 춘추 일부를 향기롭게 했다는 것은 송시열이 정계에서 은퇴한 후 지은 암서제에서 학문에 심취했던 일을 말한 것이며 3, 4구에서 남은 싹마리를 찾아 노래한다는 것은 주자의 도학과 춘추대의를 예찬하며 그 도를 잘 계승할 것을 노래한 것이다.

단풍나무는 정히 빨강고 소나무는 푸른데
 응봉의 봉우리 아래 그윽한 영령에 절하네
 우암선생의 평생의 일을 알고 한다면
 모름지기 선조가 쓴 명을 읽어야 하리

楓樹正紅松樹青
 鷹峯峯下拜幽靈
 欲知夫子平生事
 須讀吾王大筆銘³⁴⁾

1구의 붉은 단풍은 일편단심 붉은 충정을 드러냈고 푸른 소나무는 그 절개를 드러냈다. 2구의 응봉은 충북 괴산 청천면의 응봉산으로 우암묘소 근처를 말하며 그곳에 있는 우암의 혼령에 절하였다는 것이다. 4구의 우리 임금의 크게 새긴 것은 바로 화양구곡 제5곡의 침성대 중턱 암벽에 새긴 선조의 글씨 ‘萬折必東(강물이 만 번 꺾여도 반드시 동쪽으로 향한다)’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선조와 송시열이 명나라를 기리는 글귀에 쓴 것으로 단지 사대주의를 표방할 뿐 아니라, 실패를 딛고 끝까지 도전하는 정신에도 쓰이는 말이다. 다음 시는 속리산을 떠나 부여로 향하며 쓴 시이다.

아침에 속리산을 출발하니 저물녘엔 백강이라
 백강의 천하 아름답기 비할 데 없네
 낙안의 기러기 소리 차가운 절구소리 재촉하니
 석양이 창에 이르러 탑 반쯤 비추네
 고도의 진정한 자취는 칼날에 이끼만 남았고
 오랜 마을 아름다운 노래곡조는 옥과 같네
 밝은 날 작은 배 타고 어느 곳에서 놀까
 맑은 막걸리 배 가득 싣고 북으로 향해보세

朝發俗離暮白江
 白江天下艷無雙
 一聲落鴈寒催杵
 半塔夕陽紅到窓
 故都眞蹟苔生劒
 永巷纖歌玉作腔
 扁舟明日遊何處
 水北清醪載滿缸

위 시는 속리산의 여행을 마치고 백마강의 아름다운 정경을 향해 가는 과정을 노래하였다. 이 여행 뒤에 이민웅은 개성을 떠나 여주로 다시 돌아갔다. 그의 문학작품에 대해서는 차후 좀 더 자세하게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 책은 다른 동행인들은 출판까지 하는 것을 꺼렸다고 하나 당시 출판사업을 했던 공성학이 진행하여 출간하게 되었다. 다음 사진은 시집의 앞면에 실린 것으로, 좌측에서 세 번째 인물이 이민웅으로 추정된다.

34) 이민웅, 「展拜尤菴宋先生墓」, 『湖西紀征』, 한성도서주식회사, 1938.



〈사진3〉 夫餘落花岩上小照, 孔聖學,
『湖西紀征』(1938),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3. 활동 및 사업

(1) 1910년대, 만주 접리수와 서구결사록

대눌 노상익이 정리한 接梨樹의 서구결사록에 등재된 13명 중에 이민웅의 이름이 있어 그가 이 시기에 만주로 떠난 것이 확인된다.³⁵⁾ 1911년 대눌은 당시 63세로 영남의 남인 계열 유학자 관료들과 대구에서 회합을 갖고 그해 겨울(음력 10, 13) 중국 安東縣으로 망명길에 올랐다. 대눌은 興隆街에서 1년을 보내면서 독립운동가 申伯雨(1889~1962) 등과 接梨樹에 조선인 마을을 만들 계획을 세우는데 이때 이민웅의 도움으로 30호 100여 인의 접리수 한인촌을 만든다.³⁶⁾ 李承熙, 鄭元夏, 朴東欽, 盧相稷, 李敏應이 1910년에서 1915년 사이에 도만하여 접리촌에서 터전을 마련하려 했던 정황 중에도 이민웅이 여러 차례 언급되고 있다.

이민웅 자신의 기록이 없어 당시 만주로 이동한 유림계의 목소리를 통해 그에 대한 기억을 재구해 보면, 대눌은 1911년 말에서 1912년 초에 먼저 孟輔淳(1862~1933), 鄭民和, 朴在懿, 신백우와 안동현 일대를 답사하고 낮은 산이 둘러싸인 작은 들 접리수를 정작 적지로 골랐다. 이곳의 땅값이 싸고 토양이 비옥하며 민심이 순후했기 때문이다. 그 뒤 이민웅과 蔡熙東이 합작해서 접리수 옆 老根 平野를 대규모로 조차하고 韓人들에게 농사를 짓고 살게 했다.³⁷⁾

35) 이은영(2024), 158, 211면, 주95); 이길찬(2024), 6면.

36) 접리수 한인촌은 奉天省 東邊道 安東縣 第4區 接梨樹村 西溝에 형성되었다. 서동일(2015), 286면. 이민웅은 여주 군수 문태선, 읍장 전은하와 日人銀行에서 田畠을 담보로 돈을 대출받은 후 만주로 건너갔다.

37) 당시 중국정부는 조선인들의 토지매매를 금했기에 조선인들 중 이민웅 같이 큰돈을 가진 사람이 대표로 조차하고 소작인들에게 농사를 짓게 했다. 서동일(2015); 盧相益, 『大訥手卷續編』 卷4, 「梨社記」.

안동현 남쪽 30리쯤 거리에 접리수가 있는데, 신해년(1911) 11월 나[-노상익]는 맹보순, 정민화, 박재익, 신백우와 현내(縣內) 지방을 두루 돌아보았는데, 아이 우용도 따랐다. 빙 돌아 접리에 이르니, 사방이 쇠잔한 산기슭에 가로 빗겨 있는데, 열린 들판을 감싸안고 있으며, 조금 트인 가운데 꽤 큰 시내가 있었다. 거주민이 매벌의 파종을 모르고 낮고 습한 곳은 모두 황폐한 까닭에 가격은 저렴하나 토지는 비옥하며 민속은 순후했다. 그 후 수춘 이민응이 동지와 함께 자금을 합해 접리 노가(老柯)의 들판을 넓게 점유하고, 서쪽으로 이주한 한인으로 하여금 마음대로 농사를 짓게 했다. 또 나에게 매우 부지런히 일하도록 권유하고, 매번 수레를 함께 타고 눈물을 떨치며 서로 위로했다. 그는 자신이 산 서구(西溝)의 장토 5일경(耕)을 가격대로 나에게 양도했는데, 그 때 우리 형제의 여러 식구가 모두 이미 강을 건넌 상태였다. 흥룡가(興隆街)에 머무르게 하고, 동지에게 부탁해 대신 집을 짓게 하니, 1년 안에 저절로 서구(西溝)의 한 마을이 형성되었다.³⁸⁾

위의 내용으로 황무지를 확보하여 경영하도록 제공하는 일은 이민응의 후원으로 해결되었음을 알 수 있다.³⁹⁾ 대눌은 만주에서 가장 외기투합한 인물이 이민응이라고 고백하였으며 당시 西溝에 별장을 갖고 이민응과의 만남을 필연이라 여겼다. 대눌의 강학소도 이민응이 양도해 준 그의 庄屋이었다.⁴⁰⁾ 다음 시는 이민응이 한인에게 얼마나 큰 도움을 준 사람인지 그의 도량을 짐작하게 하는 시이다.

왕족 출신의 큰 배려가 없었다면	不有王孫厚
만주 망명인을 보살필 수 없건만	難憐西渡人
전답도 가옥도 마련해 주었으니	有田兼有屋
온화하고 도량이 넓은 사람인 것 같네	便似熙熙人
봄이 와 들 농사 쳐다보니	春來觀野穡
모두 다 우리 조선 사람이구나(후략)	無處不吾人(後略)

이민응을 일컬어 王孫厚, 熙熙人이라 하여 그의 넉넉한 시혜로 안동현으로 넘어온 조선 사람들이 생계 기반을 마련하여 살아갈 수 있게 되었으며 온 접리수 일대가 조선의 한 마을처럼 된 것이 모두가 이민응의 은덕이라 말하고 있다.⁴¹⁾

다음은 소눌이 접리촌 가는 길에 함서 이민응을 전별하며 쓴 것이다.

우리 임금의 백성들 요하에 두루 퍼져	吾王赤子遍遼河
----------------------	---------

38) 『大訥手卷續編』 亨, 권4, 「梨社記」(丁巳), 5通~6通, “安東縣南距三十里, 有接梨樹. 辛亥十一月, 相益與孟輔淳, 鄭民和, 朴在懿, 申伯雨, 歷覽縣內地方, 兒子右容, 亦從焉. 轉到接梨, 四面殘麓橫斜, 抱繞開野, 稍闊中有巨川, 居人不識粳種, 下濕之處, 皆荒廢, 故價廉而土沃, 民俗純厚. 其後, 李壽春敏應, 與同志合資, 廣占接梨老柯之野, 使韓人西渡者, 任意設農. 且勸我甚勤, 每與同車, 揮淚相慰, 以其所買西溝庄土五日耕, 依價讓與我. 其時, 吾兄弟諸眷, 皆已渡江矣. 留駐興隆街, 托同志, 代爲結構, 一年之內, 自成西溝一村矣.” 서동일, 전계 논문, 286~289. 원문 재인용. 번역문은 필자가 일부 수정하였다.

39) 서동일, 앞의 논문, 289면. 토지 확보는 국내에서 건너온 부호 이민응과 안동에서 誠一號라는 여관을 운영하던 중개상인 崔致勳 등의 공동 투자로 이루어졌다.

40) 이길찬(2024), 29면.

41) 대눌은 「西溝結社錄」 李敏應 향에 ‘西渡農民賴以資生’이라 하였다. 이길찬(2024), 30면. 주167).

눈보라 치는 언덕에서 남녀가 부촉하네.
유독 기천공자의 후예가 있어
차 안에서 줄줄 흐르는 눈물 주체하지 못하네.

男婦扶攜風雪陂
獨有杞泉公子裔
車中不禁淚滂沱⁴²⁾

1구는 만주 지역과 요하에 두루 퍼져있는 우리 민족의 모습을, 2구에서는 눈보라치는 언덕에 남녀가 부촉하고 있는 상황을 읊었다. 눈보라는 일제가 지배하고 있는 시대 상황의 암울함을 의미하며 扶攜하고 있다는 것은 서로 의지하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감을 의미한다. 3구에서 유독 기천공자의 후예라 한 것은 왕족의 후예인 이민웅을 생각하니 잃어버린 망국의 심정이 대비되어 서글퍼진다는 것이다. 시에서 언급한 기천공은 소눌의 문집에는 선조의 아홉째 아들 慶昌君 李珣의 호라고 되어있다.⁴³⁾ 왕족의 후예임에도 우리나라에는 왕조차 왕의 권위를 살리지 못하는 것을 슬퍼하고 함께 해주는 후손 이민웅과 전별하면서 감사와 회한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다. 소눌의 또 하나의 시 「참서 이민웅의 접리수시에 차운하며 2수를 지음[次李參書接梨樹詩二首]」에서도 그가 이민웅에 대해 고마워하는 마음을 알 수 있다.

나는 접리수 들판을 지나다
많은 조선인을 보았지.
그대들에게 묻노니, 누구에 의지해서
농사짓고 살아가는가.

我行梨樹野
多見朝鮮人
問爾誰依賴
能爲耕鑿民

답하기를 “수춘이라는 분이 있어
살아서 때를 못 만난 나를 불쌍히 여겨
밭과 집을 널리 구해 주며
친지처럼 두터이 보호해 주었다네.”

曰有壽春子
哀余生不時
爲求田宅廣
厚庇如親知

위 시는 대화 형식의 시로 접리수에 많은 조선인이 살게 된 내력과 수춘 이민웅의 행적을 압축적으로 묘사하였다. 제1수에서 소눌은 접리수에 사는 조선 사람들에게 그대들은 누구에게 의지해서 이렇게 이곳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는가 물었다. 제2수는 1수에 대한 대답으로 수춘이라는 분이 애처롭게 여겨 밭도 주고 집도 구해 주어 살아가는데 친척처럼 두터이 보살펴 준다 하였다. 이민웅이 경술국치 이후 간도로 건너와서 수많은 한인들을 위해 많은 집과 땅을 사서 그들이 정착하여 농사짓고 살아갈 수 있도록 방도를 마련해준 것이다.⁴⁴⁾ 그리고 당시에 돈이 없어 유랑하는 백성들을 위해 선뜻 거금을 들여 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준 데 대해 소눌은 깊은 감명을 받았던 것이다. 소눌의 시를 통해 당시 접리수에 있는

42) 盧相稷, 『小訥先生文集』 권2, 「接梨途中瞻李參書敏應」.

43) 저본에는 杞泉(慶昌君珣號)라고 되어있다. 이민웅이 선조의 아홉번째 아들 경창대군의 후예인 것은 맞으나, 杞泉은 선조의 여덟번째 아들 의창군의 호로 소눌이 착각한 듯하다.

44) 盧相益, 別紙, <「中國南滿洲安東縣接梨樹圖」由安東縣南距參拾里, 西溝結社錄>, 李敏應, 字, 生, 本全州, 號壽春, 與同志合資, 多購庄土, 西渡農民賴以資生; 盧相益, 『大訥手卷續編』卷4, 「梨社記(丁巳)」, “李壽春敏應, 與同志合資, 廣占接梨老樸之野, 使韓人西渡者, 任意設農.” 이은영(2017), 156면, 재인용.

우리 민족들의 입을 통해 이민웅의 평가를 재확인할 수 있다. 이는 매우 중요한 평가라 하겠다.

다음은 대눌이 밤에 장석영·이두훈·이민웅·맹보순, 그리고 동생 소눌과 함께 홍릉가 여관에서 술을 마시면서 지은 시이다.

흰머리 광가 부르며 멀리 유람하며	狂歌白首遠來遊
창해일속의 신세로 만 리를 흘러왔네.	一粟滄溟萬里流
차라리 우리나라 땅에 깃들여 머물지언정	寧欲棲留民國土
대동 땅에서 밭 갈고 우물 파는 일 감당키 어렵네.	不堪耕鑿大東邱
구름 깃 수풀 작은 집에서 원숭이 꿈에 놀라	雲林小屋驚猿夢
눈보라 속 외로운 배로 압록강을 건넜네.	風雪孤舟渡鴨洲
평생 道를 배웠지만 지금 무슨 소용있나	平生學道今何用
악수하고 마주 보니 일마다 근심이라네.	握手相看事事愁 ⁴⁵⁾

나라를 떠나 만릿길 만주로 넘어왔건만 차라리 우리나라 땅에 있을 걸, 만주에 와 밭 갈고 우물 파 먹고사는 일이 쉽지 않은 솔직한 심정들을 토로하고 있다. 경련의 風雪은 일제의 억압을, 孤舟는 나라를 떠나야 하는 외로운 심정을 읊었다. 미련의 7구에서는 평생 학문을 하며 도를 이야기하였지만, 나라를 잃은 이 시점에서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한탄하고 있으며 8구에서 事事愁라고 하여 고뇌하는 지식인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들이 도를 배웠지만 소용 없다는 것은 자신들이 배운 것을 적용하고 실천하고자 노력해도 현실적인 어려움과 장벽이 있음을 말한 것이다. 맹보순은 당시에 안동에서 상점을 경영하였다고 전해진다.⁴⁶⁾

아래 시들은 弘窩 李斗勳(1856~1918)이 임자년(1912) 봄 晦堂 張錫英(1851~1929)과 압록강 건너 행차를 나섰을 때 지은 시들이다. 행차를 마치고 안동여관에 묵으며 대눌, 소눌, 동전, 수춘과 함께 지은 시이다.

「압록강을 건너 안동 여관에 묵으며 고국의 벗 대눌 노상익과 그 아우 소눌 노상직, 동전 맹보순, 수춘 이민웅을 만나 함께 짓다」

원대한 초년의 뜻은 사방 유람이었는데	桑蓬初志四方遊
인간 세상 온갖 일들로 세월만 흘러갔네.	萬事人間歲月流
손잡고 고향 벗 기뻐 만났지만	攜手逢迎歡故友
머리 돌려 조국을 바라보니 슬픈 마음 드네.	回頭瞻望悵神邱
서쪽으로 와서 맑은 지역에 터 잡으니	西來爲卜乾清地
북쪽으로 건너면 험한 물살 많다 하네.	北渡云多灘潏洲
중국에 와서 사대부들과 만났으니	會作中華大夫子
고향과 고국 떠나와도 근심할 필요 없네.	離鄉去國不須愁 ⁴⁷⁾

45) 盧相益, 『大訥手卷續編』 卷1, 「與張舜華(錫英), 李大衡(斗薰), 李參書(敏應), 孟士幹(輔淳), 及家弟相稷, 夜飲興隆街羈館)」이다.

46) 박성순(2016).

47) 李斗勳, 『弘窩集』 권2, 「渡鴨綠江, 宿安東旅館, 遇故國知舊盧大訥相益, 其弟小訥相稷, 孟東田輔淳,

위의 시는 나라를 생각하면 서글픈 마음 어쩔 수 없고 험한 일 많지만 이국에서 동료들을 만나니 반갑고 힘이 된다는 말이다. 다음은 이두훈과 수춘이 함께 기차를 타고 오며 지은 시로 기차안에서도 공리의 득실을 논하는 등 토론이 이어졌다.

「기차 안에서 참서 이민응과 공리의 득실을 논하고 이어서 입으로 읊어 주며」

공자께서도 드물게 말씀했던 바이고	仲尼所罕言
맹자께서도 하필 이익을 말하는가 했네	子輿何必曰
의를 바로잡고 이익을 도모하지 않음은	正義而不謀
동중서가 유학의 방술로 전한 것이요	董子傳儒術
관상은 일의 공을 숭상했으니	管商崇事功
부국강병이야 따질 것 있겠는가	富強奚足說
도는 시절과 함께 변하지 않나니	道不與時變
천 년 동안 단지 한 길뿐이었네	千載只一轍
…… (중략) ……	
도가 밝아지면 이롭지 않음이 없고	道明無不利
인이 행해지면 공은 가장 가까워지네	仁行功最切
어찌하여 지금 떨쳐 일어나지 못하고	如何今莫振
겉치레만 하고 실지를 밝지 못하는가	虛文不踐實
그대가 뜻을 둔 곳에 힘쓰되	勉君志有在
처음 발을 디딜 때 신중해야 하네	當慎初軔發
설령 세상과 함께 변해간다 하더라도	縱曰與世移
항상 본말을 살펴야 할 것이네	常須審本末 ⁴⁸⁾

1구는 『논어』, 「子罕」에 “공자는 이익과 운명, 인에 대해서 드물게 말하였다.[子罕言利與命與仁]”라는 것을 원용한 것이며, 2구도 『맹자』, 「양혜왕 상」에 양혜왕이 나라의 이익에 대해 묻자 맹자가 “어찌 반드시 이익을 말하십니까. 또한 인의가 있을 뿐입니다.[何必曰利, 亦有仁義而已矣.]”라고 한 것을 말하여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바른 것을 추구하는 자신들의 태도를 논한 것이다. 4구는 『近思錄』, 「爲學」에 “그 도를 밝히고 공은 계교하지 않으며, 그 외리를 바르게 하고 이익은 꾀하지 않는다.[明其道, 不計其功, 正其誼, 不謀其利.]”라고 한 말을 원용한 것으로 자신들의 활동이 도를 밝히고 외리를 바르게 할 것을 다짐한 것이다. 이민응이 만주에서 자금을 제공한 일련의 일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음이 분명히 적시하고 있다. 5구의 管商은 부국강병을 주장한 춘추전국시대 齊나라의 管仲과 秦나라의 商鞅이다.

이어 「기차가 경성에 도착하여 이 완서와 작별하고 집으로 돌아오며[車到京城, 李參書告別歸第]」라는 시에서 이두훈은 서로 기차안에서 회포를 나누어 시름을 풀 수 있었노라고 하며 남북으로 헤어지는 아쉬움을 노래하고 이백의 「送張舍人之江東」 시에 “오주에서 달을 보

李壽春敏應共賦」.

48) 李斗勳, 『弘窩集』 권2. 「車中, 與李參書敏應, 論功利得失, 因口呼以贈」.

거든 천 리 밖에서 나를 생각해 주오.[吳州如見月, 千里幸相思]”라고 한 것을 원용하여 멀리 떠나는 자신을 생각해주시기를 바라고 있다.⁴⁹⁾ 이후 이민용은 먼저 접리수를 떠난 것으로 보이며 다른 이들도 한인촌이 쇠퇴기를 맞은 1917년경 이전에 만주를 떠난 것으로 보인다. 우선 마을의 주요 지도자들의 사망과 타지로의 이주, 노상익의 귀국, 접리수 부근 노가촌에서 이민용과 함께 농장을 운영하던 채희동(1857~1928)이 多霞山으로 이주했으며, 무엇보다 1916년 안효제가, 1917년 이승희가 사망하고 접리수 한인촌은 지도자들의 공백속에 제대로 유지되기 힘들었다. 무엇보다 일제의 마적단 습격이 큰 원인이었다고 한다.

(2) 1920년대, 여주의 救民활동 -善隣會와 畿東保隣社

만주에서 돌아온 이민용은 여주지역의 대표적인 자선사업가로 경제적 역량을 떨쳤다. 1924년 3월 현금 33,750원을 출자하여 현 이천시 백사면 현방리에 재단법인 善隣會를 설립하였고 1924년부터 1933년까지 10년동안 빈민구제사업을 실시하였다. 현재 남아있는 善隣會紀念碑에는 “노인과 어린아이가 질병이 들거나 재해를 입어 온전하지 못한 자를 구제함에는 선린회가 있다.[爲老幼疾病不具災害者之救濟而有善鄰會]”라고 기록되어 선린회 설립의 취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 비석에는 설립자, 찬조원, 찬조 금액 등이 기록되어 있으며, 여주 10구역은 물론 이천 4구역, 광주 1구역 등 690명을 구제하는 등 적극적인 투자와 선행을 실시하였다.

이민용은 선린회가 설립되기 전부터 이미 많은 기부를 했으며, 1920년 3월 27일자 동아일보 기사에는 여주 홍천면 사무소가 협조하여 신속하기 위해 이민용이 3천여 원을 단독으로 부담했다는 기사가 났다.(〈기사1〉) 1922년 여주에 홍수피해가 있었을 때 酷害를 당한 10여 호에 粟米 10袋를 면사무소에 분배하도록 의뢰하였다는 미담이 있으며(〈기사2〉) 2년 뒤인 1924년 6월 23일자 동아일보에는 ‘李氏의 慈善心’이라는 제목으로 이민용이 동네 가난한 사람에게 正租 1석과 粟米 5斗씩을 분급하고 同面內 戶稅 中에 70錢 이하는 자신이 담당한 일이 실렸다.(〈기사3〉) 1927년 매일신보 6월 3일자에도 正租 30석을 빈민에게 분급한 일이 알려졌다.



〈기사1〉 李敏應氏의 寄附(1920)



〈기사2〉 李敏應氏의 美舉(1922)



〈기사3〉 李氏의 慈善心(1924)

49) 李斗勳, 『弘窩集』 권2, “狂歌千里口相酬, 只爲車中破兩愁. 夜久分離南北遠, 一輪明月在吳州.”

1926년 3월 31일에는 이천군 백사면 현방리에 자본금 20만원으로 금융업, 부동산 매매 및 관리 수탁, 물품 매매 및 위탁 판매를 목적으로 금융신탁 殖産(株)이 설립되었다.⁵⁰⁾ 사장 및 대표는 이민웅, 중역은 沈圭澤, 任世淳, 張壽永, 朴庸勳, 金瑬鎭, 李達儀, 朴魯宜 등이었으며 이곳이 바로 독립운동가 이수흥이 군자금 탈취를 위해 침범한 곳이다.⁵¹⁾

그해 12월 여주군수 文泰善과 이민웅은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농촌진흥을 목적으로 재단법인 畿東保隣社를 창설하기로 합의하였고, 1927년 12월 25일 창설되었다. 畿東은 경기도의 동쪽이라는 뜻이며, 保隣은 이웃을 돕는다는 뜻으로 가난한 농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이었다. 지역 사회가 곡물을 모아 지역주민들에게 대출한 후, 추수 시기에 10%의 추가 곡물을 더 하여 상환하는 방식이었다. 식량 부족 시기나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공동 노력의 일환으로 당시 춘궁기 때 고리채무로 시달리던 빈민들의 삶을 안타깝게 여긴 그의 아들 載正, 조카 載敬 등은 술선수범하여 쌀 천 석을 출자하여 이 금액을 바탕으로 춘궁기에 빈민들에게 쌀 이자로 빌려주는 일종의 빈민구제사업이었다. 崔永洛, 崔眞源 등 여주지역 유지 561명도 함께하였고, 기동보린사의 총출자 기금은 2,800석에 이르렀다. 이 기금을 통해 매년 춘궁기 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종자와 학자금을 저리 또는 무이자로 대여한 뒤 추수 뒤에 갚도록 하였다. 기동보린사는 京畿道管内社會事業一覽에 9번째 一般保護事業으로 구분되어 있다.

〈표1〉 京畿道管内社會事業一覽, 독립기념관 소장(마이크로필름)⁵²⁾

명칭	경영별	소재지	설립 연도	목적	관리자	사업 개요
畿東 保隣社	私	驪州郡 州內面	1927, 11	篤實ナル 細農保護	社長 李敏應	郡內有志ヨリ粍二千七百八十三石ヲ醸出シ之ヲ郡 內各面ニ分配保管シ面民及委員ニ於テ調査ノ上適 當ト認ムルモノニ連帶貸付ス秋收時二割ノ粍ヲ附 シテ返還セシム

기동보린사는 기금이 완전한 케도에 오르자 1934년에 여주읍 하리, 지금의 여주농고 자리에 驪州農道講習所를 창설하여 농촌의 지도자를 양성하고 당시에 낙후되었던 농촌진흥관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사업으로 ‘救貧濟世’의 온인이라는 제목으로 매일신보에 소개된 이민웅은 식산 조합과 선린회의 공로로 1928년 7월 22일 기사에 총독부 정부총감 이케가미 시로[池上四郎]가 수여하는 온배를 수령하였다고 실렸다. 1928년 8월 27일에도 朝鮮京東鐵道(株)를 설립한 일에 자본금 3백만 원을 투자했다는 기사가 있다.⁵³⁾

한편, 기동보린사는 1940년 12월 14일에 기념비 설립허가를 받아 여주시 상동 영월루 근린

50) 『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1931년판)

51) 『일제하사회운동사자료집』 3, 136면, 동아일보 1929년 1월 12일 기사에 실렸다. 이수흥은 9월 28일 오후3시 驪州郡 興川面 外絲里의 이민웅 집에 침입하여 殖産公司를 털어 군자금을 징발해 외국에서 총기를 대량으로 구매하려던 것이라 증언하였다.

52) 경기도 관할구역내 사회사업 일람(치안개요 경기도 [1929년]), 독립기념관 소장.

53) 이 조합의 중역으로는 (상무이사)荒木武二郎, 小林幹三, (이사)石丸祐正, 山口太兵衛, 李敏應, 松下榮, (감사)中屋堯駿, 上野熊藏이었고, 대주주는 東山農事會社(10000), 小林幹三(16290), 田中コネ(5000), 田川常治郎(2595), 五島榮藏(2000), 中屋堯駿(1400), 荒木武二郎(1100), 李敏應(1000)이었다.

공원에 비석을 설립하였다. 당시 여주의 박수명이 관여하였으며 해방 후 비문의 ‘쇼와[昭和]’ ‘총독부(總督府)’ 등 일제의 흔적을 깎아버리고 비문을 지은 여주 군수 김영기(金映起, 1897~?)의 참세명 ‘가네마쓰 히데아키(金松秀明)’의 ‘松’자를 뚫개 버린 일도 있다.⁵⁴⁾ 당시에 이러한 부분이 예민한 문제로 제기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1930년대까지 이민용의 선행에 대한 미담기사는 이어졌으며, 1931년 6월 4일자 동아일보 기사에 실린 ‘貧農民의 活佛, 各種救濟事業’은 그가 행한 일들을 정리해주듯 잘 기술되어 있다.



〈기사4〉 貧農民의 活佛, 各種救濟事業(1931)

려주군 흥천면 외사리에 거주하는 리민응씨는 자기의 재산을 일반사회사업에 던져 여러 가지를 경영하는 까닭에 린근에서는 사회 사업가로 명망이 자자하다고 한다. 동씨는 구한국 시대에 궁내부군부, 학부의 요직을 지내다가 합병이 되자 시골로 내려 가서 농촌생활을 하다가 대정13년(1924)에 현금 33,750원을 던져 로유, 질환자, 불구자, 리재사 등을 구제할 선린회를 조직한 것이 사회 사업의 첫착수이라 한다. 그리하여 동회를 지단법인으로 만들어서 지금까지 519명을 구제하였다고 한다. 소화2년에는 벼1천석을 내노해서 기동보린사라는 것을 조직하여 춘궁기에 양식이업서 농사짓지 못하는 세농민 565명을 구제하였다 그 외에도 권농사를 자기 동리에 조직하고 현금 3천원과 벼170석을 출자하여 세농민에게 20원씩을 년7분으로 대여하여 세농민을 구제하고 고리대금을 근절시키며 소작료를 소작인에게 8할을 주고 자기는 2할만 차지하여 그동리 농민의 생활을 윤택케하였다. 그 외에도 잠업강습소를 설립하여 경비를 부담하고 잠업교육을 시키는중이며 근로사상을 고취하는 중이라한다 그뿐 아니라 1만여원을 투자하여 봉천 대련 무슨 등지에 남만공사를 조직하고 정미업을 하는중이라는 바 이것은 재만동포를 위하고저 함이라한다.

위 기사의 내용으로 보아 이민용은 貧農民의 活佛로 불릴 정도로 각종 구제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이미 여주를 중심으로 선린회, 기동보린사, 권농사를 조직하고 잠업강습소를 설치하여 교육과 근로사상을 고취하였으며, 1927년 이후 중국의 봉천, 대련 등지에는 남만공사 등을 조직하여 정미업을 경영하여 만주동포를 위한 일을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모든

54) 문태선, 김영기는 민족문제연구소가 2009년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되었다. 이 부분과 일제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실 등이 이민용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일은 1931년 전의 일이었다. 그러나 이민용은 1931년 이후 取引停止 사업에 고전을 한 것으로 보인다.⁵⁵⁾ 1932년 봄에 온 가족을 데리고 만주로 들어갔으며, 선린회 기념비는 1933년 3월에 세워졌다.⁵⁶⁾

(3) 1930년대, 만주이주조합과 模範村

이민용은 1931년 사업에 어려움을 겪으며 1932년 다시 만주로 이동하여 만주벌에 공존공영의 꿈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1932년 4월 5일에 발신한 「有力鮮人에 依한 滿洲移住組合設立 計劃」이라는 문서⁵⁷⁾에는 이를 계획한 이는 撫順南滿公司 精米所經營者 이민용으로 기록되어 있다. 조선의 유력한 豪農이 水田개척을 위해 鮮內 및 滿洲 內에서 다수 농민을 수용할 模範村을 건설해서 滿洲移住組合을 계획한다는 것이다. 수전개척은 당시 쌀농사를 통한 주식개척에 도움을 주었으며 때로 황무지 개간은 독립운동의 거점이 되기도 하였다. 이민용이 계획한 모범촌의 설립 형태는 「滿洲移住組合趣旨書」에 자세하다.⁵⁸⁾

모범촌의 목적은 우리 동포가 곤궁하게 사는 것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었다. 만주에 이주한 20년 동안 우리 민족이 백만에 달하였으나 여전히 생활이 곤궁하고 의식주가 결핍되어 예의를 모르고 사변을 겪으며 처참한 지경을 만나게 된 것이라 하고, 호구지책과 살 곳이 없어 자연히 형법에 저촉되고, 도적을 만나 귀중한 생명을 모기, 파리보다 가볍게 취급받아 비통한 지경이 되었으니 모범촌의 설립이 시급하다 주장하고 다음과 같은 규정을 제시하였다.

- ① 호수는 500戶를 1촌으로 함
- ② 농경지는 5년 혹은 7년에 세금을 거두어 매입하고 경작인의 소유로 하여 농자금을 빌려주고 5년 혹은 7년 동안 갚을 수 있게 보호함
- ③ 군인 몇 명을 파견하여 무기를 사들여 자위단(自衛團)을 설치함
- ④ 교육과 위생은 2村 혹은 3村에 학교 하나, 병원 하나를 설립함
- ⑤ 소비와 구매는 공동으로 취급함
- ⑥ 풍속은 예의엄치(禮義廉恥)를 숭상함

모범이라는 이름은 곤궁에서 나와 우리 동포를 좋은 촌락에서 생활하여 쾌락하게 살 수 있도록 하자는 의도이며, 조합의 목적은 만주지역에 흩어져 사는 조선의 곤궁한 동포들의 집단 생활을 위한 것이었다. 만주 이주민의 조건과 그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은 다음과 같다.

- 一, 신체 건강하고 품행이 선량한 자[身體健康, 品行善良]
- 一, 식재료는 곡식과 쌀을 항상 먹음[食料粟包米, 常食]

55) 이는 1933년 8월 20일에는 <取引停止>에 관한 기사를 참고할 수 있다. 李敏應, 崔東俊, 金鎮賢과 관련한 부도수표, 부도어음에 관한 기사이다.

56) 선린회기념비에 해당 내용에 있다. “壬申春李公絮家入滿洲”

57) 본 문서는 關機高鮮 제1802호의 2. 한국근대사료DB, 국외항일운동자료:일본외무성기록에 의거. 발신자는 關東廳 警務局長, 수신자는 拓務次官 등.

58) 문서철명은 「滿蒙 各地에서의 鮮人의 農業關係 雜件3」, 문서번호는 關機高鮮 제1802호의 2이다.

- 一, 의복비는 대여함[衣服費貸與]
- 一, 이주비 약간을 보조하며 식비를 제공함[移住費若干補助, 食費給]
- 一, 조합 1인당 10원이며 반액은 토지로 사들임[組合一口拾圓, 對半額土買]

이러한 만주 조합의 이주민 모집은 신문 기사를 통해 널리 알려졌다. 1932년 4월 4일에 발
행된 신문에는 <조선의 다수가 수용하는 북만주의 모범적인 농촌[鮮農多數を收容し北滿に
模範的農村]>이라는 기사 제목으로 실렸으며, 부제목은 豪農李敏應氏の計劃이다.(<그림8>)



<기사5> 朝鮮關係 ; 8. 朝鮮對外關係. 9. 雜 ; 1932(8,9),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

그러나 이민웅이 구상한 모범촌이 실제로 만주에서 운영되었는지 알 수 있는 자료는 부족
하다. 모범촌의 설립은 의식주를 준수하고 태평한 즐거움을 향유하여 누구든지 살기 원하는
곳으로 만들고자 하는 취지를 가진 재외 조합 건립에 대한 이민웅의 마지막 시도였다. 그가
단독으로 진행하기는 어려운 사업이었을 것이라 생각되기에 향후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
다.

(4) 1940년대, 畿東學園과 육영사업

이민웅의 주목되는 육영사업으로는 1943년에 여주에 畿東學園을 설립한 일과 광복 후 성
균관 대학교에 기부하고 부이사장 등을 역임한 일이다. 기동학원은 여주여자중종합고등학교
(현재 여주여자중학교와 세종고등학교로 분리)로 발전하는 모태가 되었으며, 1946년에는 대
한민국 초대 부통령 李始榮((1869~1953)의 전서를 받고 성균관과 성균관대학 재단법인 설립
에 참여하여 선린회 법인재산을 기부하였으며,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백범 金九(1876~1949)는
이민웅의 집을 두 차례나 방문하여 감사의 표시를 전하였다고 알려져있다.

1946년 봄에 유교인의 대동단결과 유교계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국유림대회가 개최
되었고, 그 자리에서 전국 유림의 총집합체인 儒道會가 결성되었으며, 유도회총본부 위원장
에 김창숙이 부위원장에 李基元, 李載億, 金成圭, 鄭寅普가 선임되었다. 당시 김창숙 위원장
은 성균관장을 겸하고 있었으므로 유도회의 발족은 유림계의 대동단합을 성취한 것이며 유
림계의 각종 과제 해결에도 박차를 가하는 것이 되었다. 유도회 총본부에서 유학대학 설립이
논의되고 있을 즈음에 명륜전문학교는 극심한 재정난으로 학교운영의 어려움을 유도회 총본

부에 호소하였다. 그리하여 김창숙 위원장은 유교 대학의 설립을 결심하고 성균관대학기성회를 설립하여 성균관대학 설립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대학 설립의 선행 조건은 재단의 구성이었다. 그리하여 성균관대학기성회는 기본재산 확보에 노력하여 독지가 李錫九를 맞아 그의 소유 재단법인 학림사의 추수 1,000石에 달하는 거대한 토지 재산의 회사를 받았으며, 재단법인 선린회 등에서 회사받은 재산을 더하고, 다시 재단법인 명륜전문학교와 전국향교가 연수입 총액의 100분의 20을 부담하는 거출금을 합한 기본 재산으로 재단구성에 성공하였다. 성균관대학의 설립이 문교부에서 정식으로 인가된 것은 1946년 9월 25일이다. 이는 성균관대학기성회의 조직과 독지가 學峰 李錫九의 재단법인 學隣舍의 막대한 토지재산, 그리고 명륜전문학교재단과 재단법인 善隣會의 재산을 합하여 재단법인 성균관대학의 설립을 문교부에 신청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결과이다.⁵⁹⁾ 이후 재단법인 성균관의 임원(1950년 현재)으로 이사장에 金昌淑, 부이사장에 이민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⁶⁰⁾ 이들의 재단설립과 기부는 다음과 같은 정신을 기조로 하고 있다.

제1조 본 법인은 우리 나라의 교육이념인 홍익인간의 정신과 동양윤리도덕에 의거하여 학문의 심오를 탐구함과 동시에 인격의 도야 함양을 도하여 이론과 실체에 원숙한 지도자를 양성함으로써 목적으로 함.[설립 제1장 목적 및 사업의 제1조]⁶¹⁾

홍익인간의 정신과 동양윤리도덕에 의거하여 학문을 깊이 탐구하며 인격을 도야하고 함양한다는 목적은 이론과 실체에 원숙한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성균관대학 학칙 제1장의 제1조의 목적과 동일하여 그가 생각한 교육의 근본 취지를 엿볼 수 있다. 이는 이민웅이 추구하는 유학의 학문적 기조가 교육의 목적과 부합함을 알 수 있다.

4. 맺음말

이민웅의 삶의 철학은 유학에 뿌리를 둔 구학문에 근거하였지만, 그의 활동은 일제강점기 민족의 위기에서 사람을 구하고자 하는 救民과 교육사업에 충분히 기여하였다. 일제에 몸으로 직접 항거하거나 드러난 꾀박은 명시되지 않았으나 이수홍과 같은 독립운동가에 협조하지 않은 단편적 기록과 같은 예로 그의 삶의 행적이 저평가될 수는 없다. 무엇보다 이와 같은 분들의 삶의 행적과 활동이 사장되지 않도록 충분하고도 정확하게 객관적 고찰을 하는 것이 연구자의 소임이며 정당한 평가는 그다음에 할 일이다.

그는 성리학을 비롯하여 오문의 원리를 중시하였고, 한시작품 등 문학 분야에서도 일정한 성취를 이루었다. 문학작품의 연구와 그가 구상한 모범촌과 같은 경우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발 더 다가선 고찰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고는 이민웅의 생애에 대해 본격적으로 이루어

59) 이상구(1997). 6, 12, 62면.

60) 이상구, 앞의 책, 46면.

61) 이상구, 앞의 책, 63면.

전 첫 번째 연구이며 그의 문집이 없고 삶의 행적이 모두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되었기에 우선 생애주기에 따라 개괄하고 정리하는 수준에 그쳤다. 그러나 차후 이를 바탕으로 분야별 보강이 충분히 이루어진다면 더 의미 있는 부분들이 드러날 것이다. [결론보강]

참고문헌

원전

- 孔聖學, 『湖西紀征』, 국립중앙도서관.
盧相稷, 『小訥先生文集』.
李斗勳, 『弘窩集』.
李範世, 『耻齋集』.
張錫寅, 『晚樂軒遺稿』, 국립중앙도서관.
『濬源續譜』, 장서각기록유산DB.
국문연구소, 『國文研究議定案』, 일본 동경대학 오구라문고.
『承政院日記』,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단행본

- 『驪州郡史』, 여주군사편찬위원회, 2005.
『利川市誌』, 利川市誌編纂委員會, 2001.
金相九 저, 『유림운동오십년사』, 도서출판 홍경, 1997.
이상주, 『조선후기 산수평론과 화양구곡한시 연구』, 도서출판다운샘, 2017.
이은영, 『요동의 학이 되어』, 학자원, 2017.
장성구, 『만라헌 장석인 평전』, 발언, 2013.
조소양 지음, 이정원 옮김, 『遺芳集』, 한국고전번역원, 2019.
『청사 조성환과 보통리 고택』, 여주박물관 학술총서, 2020.

논문

- 고민정, 「『乙未義兵實蹟』을 통해 본 을미의병 활동」, 『강원문화사연구』 12권, 강원향토문화연구회, 2007.
문복희, 「만라헌 장석인 선생의 생애와 선비 정신」, 『화서학논총』 8, 화서학회, 2023.
박성순, 「孟輔淳의 『東田文集』 편찬과 잊혀진 獨立運動史」, 『동양고전연구』 65, 동양고전학회, 2016.
박 환, 「參議府 특과원 李壽興의 의열투쟁과 군자금 모집: 제2의 안중근을 꿈꾸며」, 『한국민족운동사연구』 65권,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0.
서동일, 「1910년대 한인의 안동 이주와 집리수 한인촌 형성」, 『한국사연구』 제171호, 한국사연구회, 2015.
李鍾立, 「壽春의 生涯와 行蹟」, 『여주문화』 제8호, 여주문화원, 2000.
이길찬, 『大訥 盧相益의 志士的 삶과 詩世界』, 경상국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4.
이상주, 「『湖西紀征』에 실린 華陽九曲詩에 대한 考察」, 『한국학논집』 48호, 근역한문학회, 2017.
이은영, 「接梨樹村 西溝結社 儒林의 망명 전 교유 양상 고찰」, 『동양한문학연구』 69, 동양한문학회, 2024.
최용철, 「조선후기 中華사상과 華西학파의 《華東綱目》의 간행」, 『중국학논총』 54, 고려대학교 중국학연구소, 2016.

附. 이민응 생애의 간략 연표

연도	나이	생애 및 활동
1876(고종13)	1세	李道相(1838~1904)의 둘째 아들로 태어남, 형은 李普應
1885	10세	과평윤씨 尹泰吉의 딸과 혼인
1889	14세	柳麟錫의 문하에 들어감
1890	15세	李道根(1846~1879)에게로 출계
1894	19세	과거급제, 주사, 상의사주사, 종정원주사, 학부참서 등 역임
1900	25세	중학교 교관에 임용
1901	26세	『연암집』 續集 3권 1책을 參訂
1903	28세	『문헌비고』 속간 후 찬집소의 위원으로 연회에 참석 (당시 벼슬은 주사)
1905	30세	정3품에 임명
1906	31세	官立漢語學校 졸업
1907(고종44)	32세	1월, 정3품 임명 / 2월, 6품 중추원 부찬의로 임명 7월, 학부 서기관으로 임명
1908(순종2)	33세	5월, 국문연구소위원으로 임명
1909	34세	12월, 國文研究議定案 제출
1911	36세	경상남도 기장군수 (3월 14일~5월 26일, 2개월 반) 만주 접리수촌으로 이동 추정
1913	38세	양평군 西始面長(1913년 6월 23일 사임)
1921	46세	여주로 주거를 이전
1922	47세	여주군 홍천면 면사무소 신축에 기부(3천여원 단독 부담) 8월, 홍수로 10여호에 속미10대를 기부
1924	49세	6월, 빈민구제 쌀 기부 / 선린회조직 -33,750원 출자, 519명 구제 6월 5일, 간도 東興校 기부금 還至(조선일보)
1925	50세	7월, 이민운동정대부 송덕비(여주 홍천면)
1926	51세	『華東綱目』 목판을 거금으로 회수(현 충북 제천 紫陽影堂에 보존) 『오륜원리』, 『오륜원리언해』 발간 9월, 李壽興(1905~1929)의 침입을 당하여 11월, 사법경찰의 신문을 받음
1927	52세	12월 25일, 재단법인 畿東保隣社조직(비1천석과 26,000원 출자) -565명 구제 勸農社조직 -현금 3천원, 비170석 출자, 고리대금 근절 蠶業講習所설치 -잠업교육, 근로사상 고취 봉천, 대련에 南滿公司 조직 -재만동포를 위한 정미업(1만여원 투자)
1928	53세	7월, 식산조합과 선린회를 이끈 공로로 총독부 정무총감 이케가미시로가 수여하는 은 배 수령
1931	56세	각종 구제사업으로 사회사업가로 명망이 자자하다는 기사
1932	57세	4월, 撫順南滿公司 정미소 경영자로 만주이주조합설립 계획 8월, 북만주 모범촌 / 온 가족이 만주로 들어감
1933	58세	3월, 선린회기념비 건립 8월, 取引停止, 사업에 고전을 겪음
1934	59세	驪州農道講習所를 창설 -농촌지도자 양성
1935	60세	개성으로 이주
1936	61세	대기근으로 기아 농민 200여 명을 1개월간 집에서 보살핌(?) 12월, 이민응 학부참서 기념비 건립

1937	62세	개성 雲鶴町에서 회갑사진 공성학, 임하영, 강영직, 송영구와의 여행 후 『湖西紀征』 출간
1938	63세	다시 여주로 귀향
1940	65세	재단법인 기동보린사 창립기념비 건립
1941	66세	서울 성북구에 집을 마련하고 여주와 서울을 오감
1943	68세	기동학원 설립(여주여자중, 종합고등학교의 모태)
1945	69세	종로 명륜동으로 거쳐 이전, 평소 교분이 두터웠던 정인보·주시경 등과 교류
1946	71세	10월, 대한민국 초대 부통령 이시영의 친서를 받음, 백범 김구와 교류 성균관대학 재단법인 설립에 선린회 재산 전부 기부
1955	80세	3월 4일 교통사고로 생애를 마침 / 묘지는 경기도 시흥소재

「수춘 이민웅의 생애와 활동」 토론문

심철기(한남대)

이 논문은 수춘 이민웅의 생애와 활동에 대해 잘 분석한 논문이다. 그가 화서학과와 학문적 배경 속에서 성장하고 과거 급제를 통해 정부에서 활동하였으며 특히 학부 등에서 국문연구를 진행했다는 것은 그가 어떤 배경에서 삶을 살아갔는지를 이해할 수 있었다. 또한 그러한 사상적 배경 속에서 구민과 교육사업에 헌신하였던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이 논문은 유림 독립운동가 발굴을 위한 모색과 시도의 일환으로 이민웅의 생애와 활동을 고찰하였다고 하였다. 그 연장선상에서 독립운동가 서훈에 있어 실질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특히, 독립운동에 참여하여 활동한 것이 확인되지만 부정적으로 평가된 인물과의 교류로 외면되는 경우, 작은 오점으로 인해 삶의 전부가 부정되는 경우에 이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는 객관적인 기록에서 공적을 확인하고 친일행적이나 대한민국에 반하는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을 독립유공자로 포상하는 현행 제도에서, 객관적인 기록을 남기지 못하였지만 독립운동에 참여한 인물에 대한 포상여부와 함께 오랜 기간 논의되는 사항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질문에 답을 구하기 위해 이 논문은 이민웅이라는 인물을 고찰하였다.

따라서 이 논문은 이민웅의 생애와 활동에 대해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의 활동 중에서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 특히 독립운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행적이나 오점으로 남을 수 있는 행적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현행 독립유공자 포상제도에서 이민웅이 독립유공자로 포상받기 위한 논의가 될 것이고, 이와 유사한 행적을 가진 분들의 포상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여쭙는 것으로 토론자의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민웅은 유인석의 제자로 수학하였으며, 춘천의병운동에 참여했던 이만웅 등과 친척관계에 있었지만 1894년 과거에 급제하여 주사 등을 역임하였기에 그 시기 이만웅 등 친인척들이 중심이 되어 일어났던 의병운동에는 참여할 수 없었다. 또한 학부 서기관으로 국문연구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국문연구에 매진하고 있었기에 당시 의병전쟁 등 직접적인 국권회복운동에는 참여하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그의 배경으로 보면 의병운동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했을 것으로 판단되는 이민웅의 의병인식을 파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는 그가 독립운동에 대해 어떤 인식에서 출발했는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이민웅은 강제병합 초기 약 3년 동안 기장군수, 양평군 서시면장을 역임하였다. 이러한 그의 활동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일제시기 군수, 면장을 지낸 인물에 대해서는 독립유공자로 포상하지 않습니다. 이민웅은 병합 직후에 역임한 것이기에 이에 대한 평가를 다르게 할 수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가를 다르게 한다면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셋째, 그의 독립운동에 대한 평가입니다. 강제병합 이후 활동 중 독립운동으로 볼 수 있는 것은 ① 1924년 간도 용정에 있는 동흥중학교에 기부금을 모아 보냈으며, 1926년 군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일본경찰의 심문을 받은 것. ② 이민웅의 도움으로 접리수 한인촌을 건설할 수 있었던 것. ③ 선린회, 기동보린사 등의 활동으로 빈민구제사업 특히 어린이와 노인에 대한 구제사업과 농촌진흥운동을 전개한 것. ④ 만주지역 모범촌 건립을 계획한 것 등입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②번 접리수 한인촌에 정착한 사람들 중 노상직, 노상익 등은 독립유공자로 포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공적내용이 파리장서운동과 이주 한인의 권익과 독립운동가를 자주 접촉하여 일제에 의해 주요항일운동 지도자로 지목된 것이 중심이었다. 따라서 한인촌 건설과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할 수 있었던 것에 배경이 되었던 것은 맞지만 이를 독립운동으로 인정하는 것은 그러한 운동이 독립운동이었다는 구체적인 논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즉, 한인 이주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이것을 독립운동으로 확장하고자 한다면 독립운동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과 논리, 구체적인 사실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 독립운동 자금지원 등을 독립운동으로 인정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필자의 생각을 여쭙고자 합니다.

③번 선린회, 기동보린사 등의 활동으로 빈민구제사업 특히 어린이와 노인에 대한 구제사업과 농촌진흥운동을 전개한 것은 매우 중요한 활동이었다. 그러나 이런 활동이 일제강점기 국내에서 전개된 것으로 조선총독부의 감독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생각할 때 독립운동으로 인정하기 위한 논리와 설명 방식이 필요합니다. 더욱이 식산조합과 선린회의 공로로 조선총독부 정부총감에 수여하는 은배를 수령한 기사도 있다. 즉, 빈민구제 사업, 농촌진흥사업이 궁극적으로 독립운동으로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등의 설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필자의 생각을 여쭙고자 합니다.

④번 만주지역 모범촌 건립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1932년 만주로 넘어가 한인들을 위한 모범촌을 건설하는 계획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즉, 만주사변 이후 일본군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 만주지역에서 모범촌 건설이 어떻게 가능했는지에 대한 분석, 모범촌 규정에 ‘군인 몇 명을 파견하여 무기를 사들여 자위단을 설치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민웅의 모범촌 건설 계획이 신문 기사화된 때 반응 및 대응 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민웅의 모범촌 건립 계획은 필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구체적인 연구가 진행된 후에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대한 필자의 생각을 여쭙고자 합니다.

이 논문은 독립운동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유럽의 독립운동에 대한 분석으로 매우 의미가 있다. 특히, 문집 등을 남기지 못한 인물에 대해 어떻게 분석하고 고찰해야 하는지에 대한 시도로 의미 있는 논문이라고 할 수 있다. 향후 이민용과 같이 문집 등의 기록을 남기지 못한 유럽과 천분 등이 있는 유럽들의 문집에 대한 분석을 통해 문집을 남기지 못한 인물에 대한 간접적인 분석도 같이 시도되면 더욱 의미가 있을 것 같다. 어려운 작업을 진행하시고 있는 필자를 비롯한 연구팀에 경의를 표합니다.

心汕 趙成珉의 독립 활동 면모와 의의 고찰 － 獨立有功者 指定과 관련하여 －

이은영(동아시아한문학연구소)*

1. 머리말
2. 독립 활동 면모
 - 1) 독립 활동 계기
 - 2) 상해 임시정부에서의 독립 활동
 - 3) 옥중시
3. 독립 활동 의의와 독립유공자 자격
 - 1) 독립 활동 의의
 - 2) 독립유공자 자격
4. 맺음말

1. 머리말

전라북도 남원 출신의 심산은 평소 의학에 관심을 갖고 의료 방면으로 활동하던 인물이다. 그러나 심산의 인생은 경술국치 후 달라졌다. 바로 국권회복의 뜻을 품으면서부터이다. 심산은 1912년에는 앞서 의병을 일으켰던 李錫庸(1878~1914)이 전라북도 진안에서 20여 명의 호남지역 출신 동지들을 모아 결성한 비밀결사대 壬子冬密盟團 단원으로 활약하면서 募兵을 비롯해 무기·군자금·군수품 등을 보급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업무를 행한 면모가 확인된다. 1919년 3.1 만세 운동 이후 상해에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충청남도과 전라남북도 임시지방교통사무국에 임시특과원으로 파견한 朴齊雄(朴濟雄, 1877~1941)¹⁾이 충청남도 大田 등지에서 임시정부원 모집 활동을 전개한 사실이 있다.²⁾ 이때 충청남도 대덕으로 이주해 있던 심산은 임시정부원으로 가입한 후 1920년 상해로 직접 건너가 임시정부 인사들과 많은 논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한문학연구소 전임연구원 / nan_gurum@hanmail.net

1) 趙成珉의 『心汕遺藁』에는 朴齊雄으로 되어 있고, 공훈전자자료관에는 朴濟雄(이명:崔在弘, 朴鍾鳳, 金良圭, 潘河鳳, 朴心亭, 朴雲汀)으로 되어 있다. 대부분의 사료에 朴齊雄으로 되어 있다.

2) 공훈전자자료관(<https://e-gonghun.mpva.go.kr>)의 <朴濟雄> 공훈록 참조.

의를 하는 동안 뜻이 완전히 일치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밥낮을 가리지 않고 분투했다. 세 번째로 국경을 건너던 심산은 압록강 건너 安東(현 丹東)에 있는 怡隆洋行³⁾에서 체포된 후 안동감옥, 의주감옥, 서대문형무소로 이감되며 2년여간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 1923년 儒敎를 번창시키는 방법으로 국권회복을 도모하고자 중국으로 건너가 孔敎會 인사들을 만났으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자 돌아왔다. 그 후 심산은 1930년에도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된 사실이 확인된다. 이처럼 두 차례나 투옥되며 항일 투쟁을 전개한 심산은 해방 후인 6.25 전쟁 중이던 1952년 생을 마감했다.

심산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도 유학자이자 독립투사로 소개되어 있을 만큼 독립 활동을 펼친 면모가 분명하게 확인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독립유공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 심산 관련 연구 또한 1편⁴⁾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기존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심산의 독립 활동 계기와 옥중시 등을 통해 확인되는 심산의 독립 활동 면모를 살펴볼 것이다. 이를 기저로 심산의 독립 활동 의의 및 독립유공자 자격에 대해 규명해보고자 한다.

2. 독립 활동 면모

조성민의 자는 建威이고, 호는 心汕이며, 본관은 漢陽이다. 부친은 趙任衡, 모친은 晉陽姜氏이고, 생부는 趙麟衡, 생모는 全州崔氏이다. 1879년(고종 16) 10월 5일 전라북도 남원에서 태어났다. 1908년(융희 2) 충청도 大德으로 이주했는데, 평소 재물에 욕심이 없고, 권력자인 황제의 인척이 만남을 청해도 거절하며 지조를 지키는 등 권세에 아부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 1910년 이후 수차례 독립운동에 참여하였으며, 광복 후인 1952년 8월 4일 74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다.⁵⁾

1) 독립 활동 계기

심산은 본래 의로 방면에서 활동을 하던 인물이다.⁶⁾ 그러나 그는 1910년 경술국치를 당하자 초야에서 처자식의 봉양만 받으며 국권 회복을 도모할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義를 드러낸 바 있다.⁷⁾ 이처럼 국권회복에 대한 뜻을 품고 있던 심산은 조선을 잊지 않을 것을

3) 趙成珉의 『心汕遺藁』에는 利隆洋行으로 되어 있으나 怡隆洋行이 정확한 명칭이므로 바로 잡았다.

4) 이은영, 「獨立闘士 心汕 趙成珉의 漢詩 研究」, 『한문학보』 51집, 우리한문학회, 2024.

5) 이은영, 「獨立闘士 心汕 趙成珉의 漢詩 研究」, 『한문학보』 51집, 우리한문학회, 2024, 283~286쪽 참조.

6) 『조선총독부 관보』 제0723호(1914.12.29.) <醫生免許>에 따르면 현주소 : (남원시) 長水郡內 眞田面 五龍里, 본적 : 同, 생년월일 : 명치 12년(1879) 10월 5일, 趙成珉이 의생면허(번호 3960)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다. 1908년 조성민은 충청남도 大德으로 거주지를 옮긴 상태였기 때문에 1914년 의생면허를 취득할 때의 주소지가 남원시 장수군일 수가 없다. 그러나 조성민은 남원 출신이기 때문에 본적 주소가 남원임에 틀림없다는 점, 생년월일이 1879년 10월 5일로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점, 이름 한자가 동일하다는 점을 통해 동일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7) 이은영, 위의 논문, 286쪽 참조.

맹세하고 조선을 뜻하는 ‘汕’을 넣어 자호를 ‘心汕’이라 하였다.⁸⁾

한편 1907년 전라북도 任實 출신의 靜庵 李錫庸(1878~1914)은 전라북도 鎭安에서 의병을 일으켜 의병대장으로 추대된 후 高敞의 일본군 병참부대를 습격해 무기를 탈취 소각했다. 이에 더해 이석용은 龍潭 深源寺에서 金東臣의 三南倡義所와 합세해 300여 명의 의병을 이끌고 일본군과 접전을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1908년 9월 任實戰鬪에서 패한 뒤 의병전을 해산했다. 그 후 이석용은 1912년 자신을 포함한 22명의 호남출신 인물로 비밀결사대인 壬子冬密盟團을 조직했다. 이때 비밀결사대에 가담한 인물로 확인되는 사람은 谷城의 安子精(일명 安堦)·安在昶(일명 安穎五, 安永吾, 安永五, 安性五)·柳寅秀·趙泳善·趙愚植, 求禮의 鄭瓚錫, 河東의 李圭軫·崔齊鶴, 南原의 金景浩·金仁植·金學洙·趙成珉·許幹·許柱·許業, 全州의 崔秉心, 任實의 金炳周·崔滄烈, 鎭安의 李景夏·鄭鎭喜(일명 鄭種燁, 鄭澤信)·崔子雲 등이다. 이 비밀결사대에서는 직접 전투에 참여치는 않았으나 募兵을 비롯해 무기·군자금·군수품 등을 보급하고 밀맹단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활동을 했다.⁹⁾ 다만 이석용이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펼치기 위해 중국 망명을 준비 중이던 1913년 10월 13일 망명 직전 체포되면서 임자동밀맹단은 더 이상 활동을 펼치지 못했다. 당시 남원 출신의 조성민은 거주지는 대덕으로 옮긴 상태였지만 고향 부근에서 결성된 임자동밀맹단에 가담해 활동을 했던 것이다. 임자동밀맹단 단원은 이석용을 포함한 22명 가운데 대부분 독립유공자로 지정이 되었는데,¹⁰⁾ 정찬석·최제학·이규진·최자운·이경하·김경호와 조성민은 지정되지 않았다.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상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고, 임시지방교통사무국을 설치했다. 임시지방교통사무국, 일명 교통국은 임시정부 교통부 산하의 통신연락 기구로 1919년 5월 만주의 안동에 첫 지부를 설치한 후, 국내외의 연락에 유리한 지역 4곳(평안도·함경남도·황해도·경인지방)을 추가로 설치했다.

교통국은 임시정부와 국내외 독립단체 간 통신업무 전달 외에 임시정부 지령 국내 전달, 독립운동 인물 모집 및 연락, 국내 정보 수집 및 보고, 임시정부 운영 및 군자금 모집, 물건 송부 및 무기 탄약 운반 등 독립운동 전반의 업무를 담당했다. 그에 따라 만주 안동교통국은 임시정부의 자금 모집, 국내 정보 수집 및 보고, 임시정부의 지령 국내 전달, 독립운동 인물 소개 및 연락, 한글 활자와 한국 지도 및 무기 탄약 등을 상해로부터 국내에 반입하는 임무 등을 수행했다.¹¹⁾ 임시정부의 안동교통국 사무실은 1919년 7월, 아일랜드계 영국인 조지 루이스 쇼(George Lewis Shaw, 일명 지 엘쇼(G. L. Shaw))가 경영하는 이룡양행 2층에 설치되었다.¹²⁾ 국경 부근에 자리 잡은 안동교통국은 5개 교통국 가운데에서 활동이 가장 활발했던 곳

8) 이은영, 앞의 논문, 284쪽 참조.

9) 최성미, 『任實獨立運動史』, 전북역사문화학회, 2005, 145~146쪽; 공훈전자자료관(<https://e-gonghun.mpva.go.kr>)의 <崔滄烈>, <許業>, <許柱>, <許幹> 등 참조.

10) 공훈전자자료관(<https://e-gonghun.mpva.go.kr>)에서 독립유공자로 확인되는 인물은 金仁植, 金炳周, 金學洙, 安子精, 安在昶, 柳寅秀, 李錫庸, 鄭鎭喜, 趙泳善, 趙愚植, 崔秉心, 崔滄烈, 許幹, 許柱, 許業 등이다.

11) 유병호,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안동교통국과 怡隆洋行 연구」, 『한국민족운동사연구』 62집,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0, 81~82, 85~86쪽 참조.

12) 김영장,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안동교통사무국 설치와 운영」, 『한국독립운동사연구』 62집,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8, 95쪽 참조.

이다.

임시정부 산하의 임시지방교통사무국에서는 임시특파원을 파견해 자금 모집 및 독립운동 전개를 위한 인물들을 모집했다. 1919년 10월 임시지방교통사무국에서는 朴齊雄을 충청남도 화성군과 전라남도 지역에 임시특파원으로 파견했다. 이때 박제웅은 당시 남원에서 1908년 충청남도 대덕으로 이주해 살고 있던 심산을 만나 임시정부원 가입을 권유했고, 조성민은 이때 임시정부원으로 가입했다.¹³⁾ 이로부터 심산은 임시정부 측과 관련을 맺게 되었다.

당시 박제웅은 체포되어 재판을 받았는데, 일제문건 「상해임시정부 교통부 특파원 검거에 관한 건」에는 심산의 주소가 충청남도 太田郡 太田面 本町目 大聖三方醫生으로, 나이는 42세로, 한자 이름은 '趙成眠(趙成眠)'으로 되어 있고, 미체포 되어 수배 중이었다는 것으로 확인된다. 여기에서 보듯이 일제 문건에 한자 이름이 잘못 기재되면서 심산이 임시정부 요원이었던 사실이 그동안 알려지지 못했던 것이었다.¹⁴⁾

심산의 독립운동은 1912년 이석용이 조직한 임자동맹맹단에 가담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심산이 임시정부에서 본격적으로 독립운동에 투신하게 된 계기는 임시정부 임시지방교통사무국에서 파견한 박제웅을 만나 임시정부원 가입을 권유받으면서부터였음은 물론이다.

2) 상해 임시정부에서의 독립 활동

심산은 1919년 박제웅의 권유로 임시정부원이 된 때로부터 임시정부 측의 독립 활동에 가담했다. 이어서 심산은 1920년 임시정부에서 독립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직접 상해로 건너가 임시정부 측과 접촉했다. 이때 심산은 수배 중이었다. 그 후 세 번째로 국경을 건너던 심산은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다. 바로 안동의 이룡양행에서였다.

이룡양행은 아일랜드인 조지 루이스 쇼가 안동의 구시가에서 경영하던 무역회사이다. 조지 루이스 쇼는 회사 소유의 선박으로 조선의 독립운동가들이 임시정부가 소재한 상해와 안동을 오가는 편리 제공은 물론 적극적으로 비호했던 인물이다. 당시 조지 루이스 쇼의 조국인 아일랜드 또한 영국의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 독립 전쟁 중이었다. 동병상련의 입장을 깊이 헤아린 조지 루이스 쇼의 도움으로 임시정부에서는 일본 영사관의 경찰력이 닿지 않는 이룡양행 2층에 안동교통 사무국을 두고 군자금 모집부터 독립단원 모집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던 것이다. 그러던 1920년 안동현의 일본 영사관 경찰서는 폭탄과 권총을 휴대한 임시정부 소속 대한청년단연합회원들이 상해에서 안동현으로 온 사실을 파악하고, 7월 10일 새벽 임시정부 안동교통 사무국의 燕窩 출장소를 습격했다. 그날 吳學洙·地應靑 등이 체포되었고, 11일에는 조지 루이스 쇼가 신의주에서 체포되었다. 이때 수사를 담당했던 신의주 경찰서에서는 대한청년단연합회 일당을 비롯해 임시정부 소속 간부들과 조지 루이스 쇼까지

13) 공훈전자자료관(<https://e-gonghun.mpva.go.kr>)의 <朴濟雄> 공훈록 참조.

14)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s://db.history.go.kr>) 문서철명 :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の 部-上海假政府 2, 「上海假政府 交通部特派員 檢舉에 관한 건」(문서번호 高警 제19697호)(발신자:朝鮮總督府 警務局長)(수신자:埴原正直(외무차관))(발신일 1920.06.30.) 2쪽 <趙成眠> 참조.

모두 내란죄로 기소해 신의주 法院支廳檢査分局으로 넘겼다. 그 후 사건은 고등법원 검사국으로 송치되었고, 그해 8월 당시 관련자로 검거된 조지 루이스 쇼를 비롯해 오학수·지응진·咸錫殷·洪利寬·趙成民(趙成珉의 오류 - 필자 주)·白德鉉·金鳳聖·崔鳳麟·宋世河·李東輝·李東寧·朴容萬·盧伯麟·李始榮·高一淸·申圭植·金奎植·安昌浩·孫貞道·金聲根·鮮于燦·安秉瓚·李鐸·梁濟明 등 총 25명에 대한 예심이 청구되었다.¹⁵⁾

1921년 4월 14일 이들에 대한 공판 예심이 있었고, 5월 9일 高等法院刑事部에서 형량이 내려졌다. 임시정부요원들과 군대조직에 대해 혐의를 한 사실과 군사용품 구입 및 운반을 도모한 주모자로 지목된 오학수·지응진·함석은은 금고 3년 형을, 이를 방조했다는 혐의로 지목된 홍이관(조성민 누락 추정·필자 주)·백덕현·김봉성·최봉린·송세하는 금고 1년 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예심을 받지 않은 조지 루이스 쇼·이동휘·이동녕·박용만·노백린·이시영·고일청·신규식·김규식·안창호·손정도·김성근·선우혁·안병찬·이탁·양준명 등 16명은 1924년 3월 7일 최종적으로 공소가 기각되면서 처벌을 받지 않았다.¹⁶⁾

처음에 예심이 청구된 사람은 심산을 포함해 총 25명이다. 그중 형량을 언도받은 사람은 8명이고, 1924년 공소 기각 명단에 이름이 거론되는 사람은 16명이다. 25명 가운데 형량을 언도받거나 공소 기각 명단에 유일하게 누락된 사람이 1명 있었다. 바로 심산이다. 처음에 청구한 예심자 명단에는 한자 표기는 달라도 ‘조성민’이라는 심산의 이름이 명확하게 확인된다. 또 심산의 이름은 총 25명 가운데 다섯 번째로 거론된다. 이는 가담 정도에 따른 순서로 형량과도 연관이 있다. 이에 더해 심산의 문집에는 그가 1920년 이룡양행에서 체포된 후 안동 감옥, 의주 감옥, 서대문형무소를 전전하며 2년여간 옥고를 치른 사실이 확인된다.¹⁷⁾ 그런데 당시 일제의 판결문¹⁸⁾에는 심산의 이름이 누락되었다. 당시 고등법원에서 심산의 이름 앞에 배열된 홍이관은 안동현 교룡사무국 연와과출소 풍신원으로서 독립운동 관련 문서 왕복 등에 종사하다 체포되어 금고 1년을 받았다.¹⁹⁾ 뒤에 배열된 백덕현은 연와과출소에서 무기운반에 가담하다 체포되어 금고 1년을 받았다.²⁰⁾ 심산과 이름이 나란히 나열된 두 사람의 예를 통해 심산에게 내려질 형량을 유추해 본다면 최소 홍이관·백덕현이 방조 혐의로 받은 1년 금고형과 동일한 형량이 내려졌음이 확실하다.²¹⁾ 심산이 이때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는 명확히 확인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당시 교룡국이 주로 맡고 있던 임시정부의 자금모집, 국내외 정보수집 및 보고 등의 임무를 담당했을 것임은 틀림없다.

그밖에 심산은 1930년에도 金相閏, 崔秉憲, 朴魯星 등과 함께 체포되어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된 사실이 확인된다.²²⁾

15) 공훈전자자료관(<https://e-gonghun.mpva.go.kr>)의 『독립운동사자료집 10 : 독립군전투사자료집』(1976), 550~552쪽 <대정 14년 5월 2일 불령선인단체 조사의 건> 참조.

16) 공훈전자자료관(<https://e-gonghun.mpva.go.kr>)의 『독립운동사자료집 10 : 독립군전투사자료집』(1976), 550~552쪽 <대정 14년 5월 2일 불령선인단체 조사의 건> 참조.

17) 趙成珉, 한국역대문집총서 No.2908 『心汕遺藁』, 景仁文化社, 1999. 권6, 381~382쪽, 「行狀[安朋彦]」 “遂以庚申之歲, 渡中州見臨政諸人於上海. …… 竟逮于南滿州安東縣利隆洋行家.”

18) 공훈전자자료관(<https://e-gonghun.mpva.go.kr>)의 <오학수> 판결문 참조.

19) 공훈전자자료관(<https://e-gonghun.mpva.go.kr>)의 <洪利寬> 참조.

20) 공훈전자자료관(<https://e-gonghun.mpva.go.kr>)의 <白德鉉> 참조.

21) 이은영, 위의 논문, 287~288쪽 참조.

22) 趙成珉, 위의 책, 권1, 41쪽 「西大門獄中(庚午二月漢城金相閏崔秉憲朴魯星等外五人被逮時)」

3) 옥중시

심산이 이룡양행에서 체포되어 2년여간 옥중에 있던 사실은 그가 옥중에서 읊은 옥중시를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된다. 심산은 1920년 안동현 감옥에서 3수 「安東縣獄中懷慈母」, 「安東縣獄中憶兄弟」, 「安東縣獄窓灑雨感發」, 의주 감옥에서 2수 「移囚義州獄中」, 「題義州夜夢」, 서대문형무소에서 4수 「移京時抵獨立門下見石刻太極及獨立門三字即感而發吟」, 「西大門獄中九日」, 「西大門獄中冬至」, 「西大門獄中除夕」을 읊었다. 그밖에 옥중시로는 1930년 서대문형무소에서 읊은 「(庚午)西大門獄中」 1수가 더 있다.²³⁾

심산이 안동의 이룡양행에서 체포된 사실은 아래 「行狀」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행장을 지은 安朋彦(1904~1976)은 1919년 ‘과리장서’에 서명한 137명 유림 중 한 사람인 安孝珍(1874~1946)의 아들이다.

경술년(1910), 나라가 일본에 병합되자, 분연히 나라를 되찾겠다는 뜻을 품었다. 마침내 경신년(1920) 중국으로 건너가 상해에서 임시정부 사람들을 만났으나 논의하는 일이 많은 부분에서 합치되지 않았다. 이에 血書로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뜻을 펼치며, 밤낮으로 분투하며 크게 준비해 놓은 바가 있었는데, 마침내 남만주 안동현(현 단동)에 있는 이룡양행 건물에서 체포되어, 안동에서 의주로, 그리고 서울 서대문 감옥으로 이감되었다. 저들은 여러 방법으로 협박과 회유를 하였고, 고문하는 형벌까지 가했으나 끝까지 굴하지 않았고, 감옥에 처한 것이 무릇 2년여이다. 「行狀[安朋彦]」²⁴⁾

심산이 2년여간 옥고를 치른 사실은 『心汕遺藁』에 수록된 金潤東,²⁵⁾ 李家源,²⁶⁾ 趙炳圭²⁷⁾가 지은 총 3편의 서문과 총 6편의 발문 가운데 趙鉉基²⁸⁾, 심산의 장남 趙台熙²⁹⁾와 조태희가 쓴 발문을 이은상이 한글로 번역한 발문,³⁰⁾ 마지막에 趙貞熙의 발문³¹⁾ 등 4편의 발문을 통해서

23) 趙成珉, 앞의 책, 권1, 31~37쪽. 「安東縣獄中懷慈母」, 「安東縣獄中憶兄弟」, 「(庚申)安東縣獄窓灑雨感發」, 「移囚義州獄中」, 「題義州夜夢」, 「移京時抵獨立門下見石刻太極及獨立門三字即感而發吟」, 「西大門獄中九日」, 「西大門獄中冬至」, 「西大門獄中除夕」, 「(庚午)西大門獄中」

24) 趙成珉, 앞의 책, 권6, 381~382쪽 「行狀[安朋彦]」 “庚戌國併於日, 奮然懷興復之志, 遂以庚申之歲, 渡中州見臨政諸人於上海, 與議事多不合. 乃以血書據胸中所蘊抱, 日夜奮鬪, 大有所措備, 竟逮于南滿州安東縣利隆洋行家, 由安東而義州, 而移監京西大門獄. 彼脅誘多方而加至拷烙之刑, 終不少屈, 處獄凡二年餘.”

25) 趙成珉, 앞의 책, 6~7쪽 「序[金潤東]」 庚戌, 天下事已不可問矣. 公奮然挺身, 遂戾滬上, 與臨政同志, 據其胸中, 以圖興復, 竟被縲紲, 脅之以威, 誘之以利, 加之以拷烙之刑, 終不屈在囚二載.

26) 趙成珉, 앞의 책, 10~11쪽 「心汕遺藁序[李家源]」 “再赴中州, 初爲光復淹于滬上, 竟逮而歸. 備嘗拷烙之刑於京西之圖中者, 二年有半.”

27) 趙成珉, 앞의 책, 17~18쪽 「序[趙炳圭]」 “值邦國板蕩之會, 長空拳, 冒白刃, 難雪敵愾之志, 奔迸滬滬諸域, 竟罹獄者亦二年.”

28) 趙成珉, 앞의 책, 395쪽 「跋[趙鉉基]」 “在國家傾危之際, 挺身奮義, 欲將匡救, 而孤掌難鳴, 隻手難支, 飄然西渡, 與臨政諸人爲之共謀, 而撥亂反正之計, 未得成就, 拘入於圓扉黑索之中, 備經難苦者, 若二個星霜矣.”

29) 趙成珉, 앞의 책, 405쪽 「跋[趙台熙]」 “先府君素秉大義, 以光復祖國, 宣揚斯道, 自爲己任. 初涉中州之上海, 轉戰奮鬪, 被逮於駐滿倭賊, 備嘗拷烙之焦者凡二年有半.”

30) 趙成珉, 앞의 책, 413~414쪽, 418~419쪽, 「발문[조태희, 번역 노산 이은상]」 “아버지께서는 평소부터 정의를 주장하셔서 조국을 광복하여 이 길을 선양하는 것으로써 자기의 사명을 삼아 일찍이 중국

도 확인된다.

아래는 金潤東(?~?)이 지은 서문이다.

경술년(1910) 천하의 일은 이미 더 이상 물을 수 없게 되었다. 공은 본연히 몸을 일으켜 마침내 상해에 가서 임시정부 동지들과 함께 그의 가슴 속 생각을 펼치고, 국가의 부흥을 도모하였다. 마침내 붙잡히게 되었는데 위세로 협박하고 이익으로 유혹하고 잔혹한 형벌을 가해도 끝내 굴하지 않고 2년간 수감되었다.『序[金潤東]』³²⁾

아래는 심산의 宗後學이자 족절인 청목과 시인 趙芝薰(1920~1968)이 지은 국한문 혼용체의 발문이다.

눈으로 滄桑의 變을 본지라 志士의 蹤跡이 大陸을 驅馳하고 囹圄에 呻吟하였건만 風波險阻의 前後 崎嶇를 무릅써 끝내 志操를 바꾸지 않았나니 이것이 곧 사람으로 하여금 起敬케 하는 所以然이다.『跋[趙芝薰]』³³⁾

아래는 심산의 장남 趙台熙가 쓴 발문을 이은상이 한글로 번역한 발문이다.

아버지께서는 평소부터 정의를 주장하셔서 조국을 광복하여 이 길을 선양하는 것으로써 자기의 사명을 삼아 일찍이 중국 상해로 건너가시어 분투하시다가 만주의 일본 경찰에 체포되시어 갖은 고초를 당하시기 무릇 2년 반 만에 다시 북경으로 넘어 가셔서 공자교회 주석 진환장과 손을 함께 맞잡았고 힘을 합하여 인도의 五륜과 三강을 세상에 밝히고저 애쓰셨다.『발문[조태희, 번역 노산 이은상]』³⁴⁾

위의 행장과 서문과 발문들을 통해 평소부터 정의를 주장하더니 조국을 광복시키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삼은 심산이 중국 상해 임시정부로 건너가 동지들과 함께 국권회복을 위해 분투하던 중 체포되어 옥중에서 2년 반 동안 온갖 협박과 회유 등의 고초를 당해서도 굴하지 않았고, 출옥 후 다시 북경으로 건너가 공자교의 주석 진환장과 힘을 합쳐 오륜과 삼강을 통해 세상을 밝히고자 애쓴 사실이 확인된다. 이처럼 심산은 국권회복을 위해 상해 임시정부로 갔다가 활동 중에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으며, 일제의 어떠한 협박과 고문과 회유에도 굴하지 않은 강인한 정신력을 지녔던 인물이다.

한편 일제에 대한 저항심이 강했던 심산은 1919년 상해 임시정부원이 되었고, 다음 해인 1920년 상해로 건너갔다. 상해로 건너간 심산은 상해의 여관에서 7연윤시로 아래의 시「상해

상해로 건너가시어 분투하시다가 만주의 일본 경찰에 체포되시어 갖은 고초를 당하시기 무릇 2년 반 만에 다시 북경으로 넘어 가셔서 공자교회 주석 진환장과 손을 함께 맞잡았고 힘을 합하여 인도의 五륜과 三강을 세상에 밝히고저 애쓰셨다.”

31) 趙成珉, 앞의 책, 「跋[趙貞熙]」 424쪽 “對日抗爭, 奮闘於傾覆之際, 渡中謀復, 驅馳於剪屠之地. 不辭湯鑊, 甘飴獄刑.”

32) 趙成珉, 앞의 책, 6~7쪽 「序[金潤東]」 “庚戌, 天下事已不可問矣. 公奮然挺身, 遂戾滬上, 與臨政同志, 攄其胸中, 以圖興復, 竟被縲紲, 脅之以威, 誘之以利, 加之以拷烙之刑, 終不屈在囚二載.”

33) 趙成珉, 앞의 책, 401~402쪽 「跋[趙芝薰]」

34) 趙成珉, 앞의 책, 413~414쪽, 418~419쪽, 「발문[조태희, 번역 노산 이은상]」

프랑스 조계지 鴻儀里 여관에서 회포를 풀며[在上海法租界鴻儀里旅館題襟]를 읊었다.

사해의 풍운이 함께 끓어오를 때	四海風雲共際開
사랑하는 내 오두막집에서 춘몽을 꾸며 몇 번이나 배회하다	愛廬春夢幾徘徊
더디고 더디게 고국 떠나기를 올해야 작별하고	遲遲去國今年別
두둥실 떠가는 배를 함께 타고 만 리를 왔네.	泛泛同舟萬里來

(하락)³⁵⁾

위의 시는 1920년 심산이 처음 고국을 떠난 해에 읊은 것으로 추정된다. 수련의 風雲은 큰 뜻을 품은 영웅, 즉 임시정부 요원들이 실력 발휘를 할 때가 왔음을 의미한다. 한편의 同舟는 환란을 함께 겪었음을 뜻하는 고사 同舟共濟에서 가져온 것으로 당시 심산은 혼자서 상해로 건너간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³⁶⁾ 국망이라는 고통을 함께 겪은 동지와 함께였을 것임에 틀림없다.

그 후 동지와 함께 임시정부 측 일을 보던 심산은 이릉양행에서 체포되어 투옥되었던 것이다. 아래는 심산이 처음 안동현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읊은 「안동현 감옥에서 모친을 그리워하며[安東縣獄中懷慈母]」이다.

뜻이 南京에 있어 北堂을 멀리했는데	志在南京遠北堂
오늘 이런 날을 만났으니 죄가 상당하네	今逢此日罪相當
몸을 훼손하여 근본 상하게 함은 원래 효가 아니지만	毀身傷本元非孝
의리를 (귀 달린) 술처럼 걸어두고 어찌 건디랴.	義理那堪掛鼎鑪 ³⁷⁾

심산은 北堂, 즉 어머니마저 가까이서 모시지 못한 이유는 자신의 뜻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 건너온 남경의 상해 임시정부 때문이라고 했다. 바로 독립운동에 뜻을 두었다는 말이다. 그런데 오늘 끝내 일제에 잡혀 투옥되었으니 죄가 상당하다고 자백하고 있다. ‘身體髮膚受之父母 不敢毀傷 孝之始也’를 익히며 몸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됨을 평생 익혀왔던 심산으로서 가까이서 모시지도 못하면서 囹圄의 몸이 되어 모친에게 걱정까지 끼치게 된 것이 효는 아니지만, 귀 있는 술을 걸어놓은 듯 의리에 어긋난 짓을 하는 일제의 만행을 그냥 지나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심산은 자신의 독립운동은 임진왜란 때의 의병장 趙慶男의 후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로 생각하고, 효보다 의를 더 우선해서 한 행동임을 드러낸 것이다. 한마디로 심산은 일생동안 ‘의’를 지향했음을 알 수 있다.³⁸⁾

옥중에서 부모님 다음으로 신경이 쓰이는 것은 바로 형제들이다. 아래는 심산이 안동현 감옥에서 고국의 동생들을 그리워하며 읊은 「안동현 감옥에서 형제를 그리워하며[安東縣獄中

35) 趙成珉, 앞의 책, 권1, 31쪽 「在上海法租界鴻儀里旅館題襟」

* 이은영, 위의 논문, 301쪽 번역 재인용.

36) 이은영, 앞의 논문, 303쪽 참조.

37) 趙成珉, 위의 책, 권1, 31쪽, 「安東縣獄中懷慈母」

* 이은영, 앞의 논문, 291쪽 번역 재인용.

38) 이은영, 앞의 논문, 291~292쪽 참조.

憶兄弟」이다.

형제가 이천리 밖에서 서로 그리워하는데	兄弟想思二千里
하나는 관옥에서 둘은 집에서라네	一於館獄二於家
감옥은 집이 아니고, 집은 또 감옥이니	獄是非家家亦獄
누가 장차 집과 감옥 모두를 화평하고 기쁘게 만들려나.	誰將家獄俱平嘉 ³⁹⁾

전구의 심산이 있는 감옥은 집이 아니고, 형제 둘이 머무는 곳은 집이 분명한데도 감옥이라는 말은 감옥에 있는 자신과 매한가지로 집에 있는 형제들 또한 감옥에 있는 것 같은 고통을 함께 겪고 있음을 언급한 것이다.

심산은 안동 감옥에서 의주 감옥으로 이감되었는데, 그 이유는 다음 하년 예심을 받기 위해서였고, 시기는 “5월의 강산 참혹하기 가을 같다[五月江山慘若秋]”고 한 구절로 보아 5월이 확실하다.⁴⁰⁾ 그런데 안동 이룡양형에서 일본 형사관 경찰서에서 임시정부 안동 사무국의 연와 출장소를 습격한 것은 1920년 7월 10일로 확인되는데, 이는 음력 5월 25일이다. 따라서 심산이 5월의 강산 참혹하기 가을 같다는 표현은 음력으로 언급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심산은 체포되고 며칠 안 되어서 의주 감옥으로 이감된 것으로 보인다. 의주 감옥에서 머무르던 심산 일행은 1921년 4월 14일 공판 예심을 받았고, 5월 9일 高等法院刑事部에서 형량이 내려졌다.

의주 감옥에 수감된 상태에서 형량을 선고받은 심산은 서울의 서대문형무소로 이감되었다. 이때 서대문형무소로 옮겨가던 길에 심산은 아래의 시 「서울로 옮겨갈 때 독립문 아래 다다랐는데 들에 태극 문양과 독립문이라는 3글자가 새겨진 것을 보고 곧 감흥이 일어 시를 읊었다[移京時抵獨立門下，見石刻太極及獨立門三字，即感而發吟]」를 지었다.

사람의 마음이 지극하면 곧 하늘이 이루어준다는데	人心極處即天成
감옥이 있는 서대문에 독립이라는 이름이 있네	獄在西門獨立名
어떻게 하면 사그라들고 늘어나는 이치를 미루어 깨달아	如何推得消長理
충만한 기운[太食]이 점점 더하여 太極이 생겨나게 할 수 있으려나	太食登登太極生 ⁴¹⁾

위의 시 기구와 송구에서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니, 감옥이 있는 서대문에 독립이라는 이름이 있는 만큼 조국의 독립이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심산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고 있다. 기실 독립문은 대한제국 때 獨立協會의 徐載弼(1864~1951) 등이 조선 초기부터 중국에서 오는 사신을 맞아들이던 迎恩門을 부수고 새로운 형태의 문을 세우고 독립문이라고 명명한 것이다. 이를 통해 심산은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을 미루어 일제로부터의 독립까지 이어갈 것을 고대할 것임을 알 수 있다. 전구와 결구에서는 흥망성쇠의 이치를 다 헤아릴 수는 없으나, 충만한 기운에서 만물의 근원인 태극이 생성된다는 뜻을 담고 있다. 본래 ‘太極生’은 ‘太

39) 趙成珉, 위의 책, 권1, 31쪽, 「安東縣獄中憶兄弟」

40) 趙成珉, 앞의 책, 권1, 34쪽, 「移囚義州獄中」 “五月江山慘若秋，晚風溯掠汗衣愁。初提豫審云云事，夢不偶然到義州。”

41) 趙成珉, 앞의 책, 권1, 34쪽 「移京時抵獨立門下，見石刻太極及獨立門三字，即感而發吟」

極生兩儀를 뜻하는 것으로 태극이 陰陽을 낳는다는 뜻이다. 충만한 기운이나 극점에 달한 상태에서 새로운 시작, 즉 태극과 같은 근원적인 존재가 생겨난다는 의미이다. 한마디로 절망 속에서도 새로운 희망이 밝은다는 통찰을 보여준다. 심산은 달도 차면 기울고 물이 성하면 줄어드는 이치를 미루어 지금은 일제가 강성하지만 곧 쇠퇴하고, 곧 韓人들의 고난이 끝나고 제자리를 찾으리라는 기대를 담아냈다. 심산은 어떻게 하면 사라진 훌륭한 이치를 찾아서 국권회복을 도모할 수 있게 할지를 고민했던 것 같다.

결론적으로, 위의 시는 인간의 내면 수양[人心極處即天成]과 외부 세계의 고난[獄在西門獨立名]을 대비시키며, 우주의 보편적인 변화 이치[消長理]를 통해 독립의 의미를 통찰하고자 한 것이다. 특히 절구는 모든 것의 근원인 태극이 ‘충만한 기운’에서 비롯됨은 절망과 고난 속에서도 새로운 탄생과 희망이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다.

심산은 서대문형무소에서 최소 夏至와 冬至를 보냈으며, 冷漏로 많은 고생을 한 사실도 확인된다. 넓적다리와 발 사이에서 발명하는 냉루는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우선인데, 의술을 5,6년간 익힌 심산이었지만 옥중에서 몸을 따뜻하게 할 방법은 없었던 것이다.⁴²⁾

심산은 1930년에 또 한 번 투옥된 사실이 있다. 이는 아래의 시 1930년 서울에서 金相閔, 崔秉憲, 朴魯星 외 5명이 함께 체포되었을 때 지은 시 「서대문 옥중에서(경오년(1930) 2월 한성의 金相閔·崔秉憲·朴魯星 등 외 5명이 세포되었을 때)[西大門獄中(庚午二月漢城金相閔·崔秉憲·朴魯星等外五人被逮時)]」를 통해서 확인된다.

쥐와 참새가 사람들을 함정에 빠뜨렸으니 바로 우리나라인데	鼠雀陷人即我東
잡혀온 여섯 벗 한 그물 안에 있네	打來六友一網中
봄에는 판잣집에 비가 모질게 파고드니 괴롭고	春惡凌侵板屋雨
밤에는 鐵窓으로 바람이 차갑게 불어오니 시름겹네	夜愁冷落鐵窓風
心事が 연경에 있음은 해처럼 증명되건만	心事燕京如日證
죄명이 상해라 함은 하늘을 걸고 무고한 것이라네	罪名滬海賭天空
최마복에 포승줄을 말해 무엇하랴	衰麻縲紲何須說
가련구나, 불효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리네.	可憐不孝淚龍鍾 ⁴³⁾

시 제목에 서술된 金相閔·崔秉憲·朴魯星 등은 현재 행보는 물론 기본적인 인적 사항조차 확인되지 않는다. 수련은 일제가 쥐와 참새처럼 교활한 방식으로 조선인들을 함정에 빠뜨리는 현실을 고발한 것이다. 六友는 심산을 포함해 6명의 동지가 동시에 체포되었다는 뜻인데, 여섯 명의 동지는 명확히 밝혀진 바가 없다. 함련에서는 열악한 감옥의 현실이 잘 드러나 있다. 봄비와 밤바람이라는 자연 현상을 통해 날씨마저 괴롭히는 감옥의 절망적인 상황을 읊어, 심산이 느끼는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시름이 독자에게 고스란히 전해진다.

경련의 滬海는 상해에 주재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뜻하고, 燕京은 북경의 옛 이름으로 공교회 본부가 있는 곳이다. 상해라는 지명에서는 심산의 굳건한 독립 의지가, 북경이라는 지

42) 趙成珉, 앞의 책, 권1, 35쪽 「西大門獄中除夕」 “冷漏催更夜正幽, 悠悠鄉思水東流. 欲終將始江山靜, 除送人間萬斛愁.”

43) 趙成珉, 앞의 책, 권1, 41쪽 「西大門獄中(庚午二月漢城金相閔崔秉憲朴魯星等外五人被逮時)」

명에서는 공교회 운동이라는 또 다른 방향에서 국권회복을 도모하던 심산의 모습이 엿보인다. 마음속의 생각이나 고민은 북경의 공교회 일에 있음이 매우 명확하고 확실한 진리인데, 상해에서 항일 투쟁을 했다고 하며 죄명을 씌우는 것은 하늘을 상대로 도박을 거는 것처럼 헛된 일이라며 심산은 복잡한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이는 과거 상해임시정부 측에서 일을 하다 체포되어 투옥된 사건을 빌미로 아직까지 독립운동을 하느냐는 의심을 받자, 심산은 북경의 공교회 일을 하고 있을 뿐임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당시까지도 심산은 공교회 일을 놓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련에서는 감옥에 있어 모친의 상을 제대로 치르지 못하거나 모친에게 불효하는 상황을 표현한 것이다. 추정컨대 이때 심산은 모친상을 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미 상복을 입고 갇힌 신세이니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는 체념과 비판이 드러나 있다. 특히 미련 2구의 ‘龍鍾’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사람이 늙어서 대나무 가지와 잎이 스스로 주체하자 못하고 흔들리는 것과 같은 모습을 형용하는 말로 쓰였다. 따라서 미련의 2구는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림을 표현한 것으로, 심산의 인간적인 고뇌와 비애를 담고 있다. 독립을 위해 헌신했지만, 그로 인해 모친에게 불효자가 되었다는 죄책감과 슬픔에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는 모습이 잘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독립운동가들이 겪어야 했던 개인적인 희생과 가족에 대한 애끓는 마음을 절절히 보여준다. 이를 통해 당시 독립운동가들의 고뇌를 생생하게 느껴볼 수 있다.

한마디로 위의 시는 일제에 의해 체포되어 옥고를 치르는 독립운동가의 고통스러운 현실, 불굴의 독립 의지, 부모에게 불효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대한 똥한의 감정 등을 진솔하게 담아낸 작품이다.

3. 독립 활동 의의와 독립유공자 자격

1) 독립 활동 의의

심산의 독립 활동에 대한 의의는 그가 1910년 경술국치를 당했을 때의 심정을 잘 드러낸 아래의 1910년 경술국치 때 아편을 먹고 자결을 하고자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자 온둔한 후 학문에 전념하다 1935년에 사망한 龍巖 宋龍在(1864~1935)에 대해 지은 만시「挽宋直閣(龍在乙亥(1935)三月○庚戌屋社, 欲飲藥自決而未果)」⁴⁴⁾를 통해서 확인된다.

경술년 이는 어떤 날이런가

庚戌此何日

천리가 모두 원수의 땅에서 복역하게 되었다네.

千里皆讎役

(하락)

경술국치를 당했을 때 심산은 천리 모두가 원수의 땅이 되었고, 그곳에 사는 백성들은 원수인 일제에게 부림을 당하게 되었다고 했다. 송구의 讎役은 讎人役의 줄임말로 荀子가 말한

44) 趙成珉, 앞의 책, 권1, 44쪽 「挽宋直閣(龍在乙亥(1935)三月○庚戌屋社, 欲飲藥自決而未果)」

‘六千里讐人役之歎’에서 유래한 것으로 곧 자신이 원수의 땅에서 복역하는 것을 뜻한다. 이를 통해 심산은 일제를 원수요, 금수로 생각할 정도로 미워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전 국토가 모두 원수 일본의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으며, 백성들 또한 모두 일제의 부림을 받는 노예가 되어버리고 말았다고 생각한 심산은 국권 회복을 도모할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義를 드러낸 바 있고,⁴⁵⁾ 조선을 잊지 않을 것을 맹세하고 조선을 뜻하는 ‘心油’으로 자호를 삼았다.⁴⁶⁾ 한마디로 심산이 국권회복에 대한 뜻을 품고 독립운동에 투신한 것은 원수의 땅을 회복해 원수인 일제의 부림을 받을 백성들을 구제하려는 마음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1운동 전후 민족지도자들은 부옥당하는 상황에서도 지속적이고 체계적이며 능률적인 독립운동 전개를 위한 임시정부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꼈다. 이에 국내외에 총 6개의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는데, 그중 러시아의 ‘大韓民國議會政府’, 워싱턴에 본부를 둔 서울의 ‘漢城臨時政府’, 상해의 ‘大韓民國臨時政府’가 기구나 부서를 형식적으로나마 갖춘 것이었다. 그밖에 ‘朝鮮民間 臨時政府’, 平安道の ‘新韓民國政府’, 畿湖의 ‘大韓民間政府’는 유명무실한 단체였다.⁴⁷⁾ 그 후 곳곳에 수립된 임시정부는 상해의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중심으로 운영되게 되었다. 심산은 박제웅이 임시정부원이 될 것을 권유받고 임시정부원이 되었는데, 이는 그의 뜻이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더해 심산이 이룡양행 건물에서 체포가 되었다는 것은 이룡양행 건물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인물들과 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를 행했음을 뜻하는 것이다.

모든 독립운동가가 안중근, 윤봉길, 이봉창같이 한순간에 자신의 목숨을 희생한다면 독립운동의 여러 면모를 따져볼 필요도 없다. 그러나 모두가 다 그렇게 나설 수는 없다. 때를 기다려서 일이 성사될 확률이 높을 때 실행에 옮겨야 하는 것이다.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역량을 발휘한다면 수고로움의 경중을 헤아려서는 안 된다. 심산은 마흔을 넘긴 나이로 직접 독립운동에 투신하기 위해 상해로 건너갔다. 그리고 상해 임시정부와의 연계 속에서 독립운동을 벌이다 체포되어 2년여간 옥고를 치렀다. 이를 통해 심산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하였음을 알 수 있다.

심산의 독립 활동 의의는 국권 회복에 뜻을 둔 지식인으로서의 고뇌를 계속 이어가고 있었다는 점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심산은 “조선은 언제나 깨끗해지려나, 장안은 잠시도 편하질 않네. 외 손이라 좋은 계획은 없으나, 편안함을 구해 조선인들에게 은혜로움 베풀었으면.[朝鮮那當鮮, 長安不暫安. 隻手無長策, 要佗惠鮮人.]”⁴⁸⁾이라며 자신이 어떻게 하면 좋은 계획을 내서 조선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편안하게 살게 할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고뇌하고 있지만 자신에게는 좋은 계획이 없음을 안타까워하기도 했던 것이다.⁴⁹⁾

45) 각주 9) 참조.

46) 각주 10) 참조.

47) 金麟坤, 「上海臨時政府의 樹立經緯」, 『사회과학』 4집, 경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1985. 4쪽, 9~10쪽 참조.

48) 趙成珉, 위의 책, 권1, 47면 「感懷自發」

* 이은영, 위의 논문, 297쪽 번역 재인용.

49) 이은영, 앞의 논문, 297쪽 참조.

심산은 국권회복을 위해 무언가를 하고 싶은 마음을 드러내기도 했다. 아래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마음이 상해서 헛소리를 하며[感傷發譫]」이다.

창에는 납약이 없고, 거리에는 임금이 없으니
하늘은 어찌 이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는가.
만약 시절을 구제한다는 말이 있을 것 같으면
온기로 영웅과 함께 세상 추위 녹이리라.

牖無納約巷無主
天何無意此人間
有爲若是救時說
溫與英雄解世寒⁵⁰⁾

기구의 牖無納約은 『주역』 坎卦 六四에 “땀을 들이되 통한 곳으로부터 해야 끝내 허물이 없다.[納約自牖, 終无咎.]”라고 한 納約自牖에서 갖고 온 것이다. 신하가 군주를 깨우칠 때는 극진한 충성과 옳은 방법으로 군주의 마음을 유도하되, 반드시 군주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를 통해 기구에서는 군주에게 충심으로 간언하는 신하가 없더니, 끝내 나라가 망해서 임금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음을 언급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심산은 전구와 결구에서 만약 시절을 구제한다는 말이 있을 것 같으면 자신도 일조해서 얼어붙은 세상을 따뜻하게 녹여주겠다는 의지를 다짐하고 있다.

이처럼 심산은 지식인으로서 국권회복에 대한 의지를 끊임없이 드러내고 있고, 실천하기 위해 다방면에서 애썼다. 비록 마음같이 큰 성과를 낸 것은 아니지만, 눈에 드러나는 성과를 내지 않았다고 해서 심산의 독립 활동에 의의가 없는 것은 아니다. 꼭 드러나는 성과가 있어야만 가치를 인정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는 이봉창이 일본 왕을 저격하다 실패한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2) 독립유공자 자격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5. 1. 21. 일부개정령을 발표하고, 2025. 4. 22.부터 시행된 <독립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독립유공자에 해당하는 인물의 범주를 알 수 있다. 독립유공자는 크게 2가지, 순국선열과 애국지사가 있다. 순국선열은 일제의 國權侵奪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 그 공로로 建國勳章·建國褒章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이다. 애국지사는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이다.⁵¹⁾

국가보훈부 공훈발굴과 제공의 <독립유공자서훈 공적심사 일반기준>에 따르면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독립운동 공적이 있는 인물을 대상으로 하는 독립유공자 서훈 공적심사의 일반적인 기준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적극적인 독립운동 공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독립운동 공적이 원천자료에서 확인됨을 원칙으로 한다는

50) 趙成珉, 위의 책, 권1, 60면 「感傷發譫」

51) 법제처(<https://www.law.go.kr/>) <독립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자) 참조.

것이다. 셋째, 사망 시까지의 행적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포상 대상 제외 또는 보류의 경우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째, 대한제국 시기에 친일단체 활동 등으로 국위를 손상시키거나, 을사늑약 등 배국조약 당시 대신급 이상을 역임하여 국권상실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 자이다. 둘째, 일제 식민통치 기구 또는 관련 단체에 재직하거나 식민통치에 직·간접적으로 협력한 것으로 판단된 자이다. 셋째, 상훈법 상의 서훈 취소 조항에 해당하는 자이다. 즉, 광복 후 3년 이상의 형을 받아 공적에 흠결이 있는 자이다.⁵²⁾

심산이 독립유공자 포상 대상자로서의 자격을 갖추었는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첫째, 적극적인 독립운동 공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심산은 1912년 임자동밀맹단에 가입해 활동한 면모가 확인된다. 또 그는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충청남도화 전라남도 임시지방교통사무국에 임시특과원으로 파견한 朴齊雄의 권유로 임시정부원으로 가입한 사실이 있다.⁵³⁾ 이에 더해 심산은 1920년 상해로 건너가 임시정부 일을 하던 중 이룡양행에서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투옥된 후 2년여간 옥고를 치른 사실이 확인된다.

둘째, 독립운동 공적이 원전자료에서 확인됨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다. 국가보훈부에서 인정하는 공적 증거 자료는 독립운동단체 명부, 기관지, 판결문, 행정자료, 신문 보도기사, 정보기관 보고서, 사진, 수기 등 활동 당시의 자료 제공이 원칙이다. 심산의 독립운동 공적은 일제 문건에서 거듭 포착된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심산 문집에 수록된 옥중시와 서문, 발문, 행장 등을 통해 그가 상해 정부에서 활약하던 중 이룡양행에서 체포되어 2년여간 옥고를 치른 사실이 확인된다는 것이다.

이어서 심산이 포상 대상 제외 또는 보류의 경우에 해당하는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첫째, 대한제국 시기에 친일단체 활동 등으로 국위를 손상시키거나, 을사늑약 등 배국조약 당시 대신급 이상을 역임하여 국권상실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 자인가이다. 심산은 관료 생활을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다.

둘째, 일제 식민통치 기구 또는 관련 단체에 재직하거나 식민통치에 직·간접적으로 협력한 것으로 판단된 자인가이다. 심산은 일제 강점기 이후 임자동밀맹단을 비롯해 대한민국 상해 임시정부 요원으로 활약한 사실만 확인될 뿐이므로, 이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다.

셋째, 상훈법 상의 서훈 취소 조항에 해당하는 자인가이다. 즉, 광복 후 3년 이상의 형을 받아 공적에 흠결이 있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심산은 1952년 생을 마감했고, 3년 이상의 형을 받은 사실이 없어 공적에 흠결이 없는 만큼 그의 해방 후의 행적에는 문제점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그밖에 심산의 독립유공자에 지정되어야 할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자.

첫째, 심산은 감옥에서 옥중시 총 10제를 남겼다는 것이다. 이는 심산이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투옥된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자료이다. 옥중에서 일제의 회유와 협박에도 전혀 흔들림 없는 자세를 취했던 심산 본인이 투옥된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항일 정신을 여실히 드러낸 다수의 옥중시를 지었겠는가 하는 것이다. 훗날 유공자 지정을 계산하고 투옥하지도 않은 옥중시를 지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52) 국가보훈부(<https://mpva.go.kr/>) <독립유공자서훈 공적심사 일반기준>

53) 공훈전자자료관(<https://e-gonghun.mpva.go.kr/>)의 <朴濟雄> 참조.

둘째, 심산의 『심산유고』 서문과 발문, 그리고 행장 등에는 그가 안동의 이룡양행에서 체포된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내용들이 담겨 있다는 것이다. 『심산유고』에 서문을 쓴 김윤동, 이가원, 조병규와 발문을 쓴 安秉台, 조현기, 조지훈, 조태희, 이은상, 조정희의 면모를 보았을 때 이 사람들이 거것으로 심산이 이룡양행에서 체포되어 2년여간 투옥되었다는 내용을 썼을 리는 만무하기 때문이다.

셋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심산에 대한 요약을 일제강점기 『심산유고』를 저술한 유학자이자 독립투사로 서술해놓았다는 것이다.⁵⁴⁾

넷째, 간도에서 李承熙(1847~1916) 주도로 펼쳐졌던 공교회 운동이 이승희 사후 시들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항일 투쟁의 또다른 방향을 찾기 위해 심산은 공교회 운동에 전념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이는 심산이 국권회복 후 이끌어 나갈 국가의 이념으로 공교회를 선택해 한인 계도에도 마음을 다졌음을 의미한다.

다섯째, 심산의 『심산유고』에 수록된 편지글은 斗南 안병태(1885~1957)와 주고받은 3편, 중국 孔敎會 인사 陳煥章에게 보낸 1편, 아들 조태희에게 보낸 11편이 전부이다.⁵⁵⁾ 아들 외에 보낸 편지는 단 2명인데, 그중 하나는 중국인이다. 이는 심산이 타인과 주고받은 편지를 고의적으로 남기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심산은 독립운동을 하는 동안 동지들과 주고받은 편지글을 남겼다가 발각되면 자신뿐 아니라, 편지를 보낸 사람이나 편지글에서 언급된 사람들까지 다칠 염려가 있어서 남겨 두지 않았을 것임에 틀림없다.

여섯째, 이룡양행 이름으로 체포되어 주모자로서 금고 3년 형을 선고받은 오학수·지응진·함석은, 방조자로서 1년 형을 선고받은 홍이관·백덕현·김봉성·최봉린·송세하 총 8명 가운데 최봉린을 제외한 7명은 모두 독립유공자로 지정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심산의 독립유공자 지정의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4. 맺음말

이상으로 심산의 독립 활동 면모 및 독립 활동 의의와 독립유공자 자격에 대해 살펴보았다.

심산의 독립운동 면모가 자료로 확인되는 것은 1912년 임자동밀맹단에서부터이다. 그 후 그는 1919년 상해 임시정부원에 가입했고, 1920년 상해 임시정부로 건너가 세 번째 국경을 건너다 안동 이룡양행에서 체포된 후 2년여간 옥고를 치렀다. 이에 더해 그는 1923년 유교를 통해 국권회복을 도모하며 비폭력 저항 운동도 시도했다. 비록 이러한 활동이 처음 뜻처럼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는 자신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항일 투쟁에 최대한 힘쓴 면모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만큼 그의 항일 투쟁은 그 가치를 인정받아 마땅하다.

서훈된 독립유공자는 당연히 그 공훈을 기리고 전승시켜야 한다. 그리고 친일과 청산도 중요하다. 비록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오늘날 친일과 청산이 일부 성과를 거둔 것도 사실이다.

54)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趙成珉> 참조.

55) 이은영, 위의 논문, 289쪽 참조.

그러나 오늘날에는 권일과 청산보다 독립운동가를 유공자로 지정해 그 후손들이 선조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사회적으로 보다 긍정적인 효과를 내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논문을 계기로 독립유공자 자격을 확실하게 갖춘 심산이 독립유공자로 지정되어야 함은 물론, 지금까지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해 독립유공자로 지정되지 못한 또 다른 독립운동가들의 독립유공자 지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趙成珉 著, 趙台熙 編, 『心汕遺稿』, 1965.
- 趙成珉, 『心汕先生文集』(역대문집총서 No.2908), 경인문화사, 1999.
- 최성미, 『任實獨立運動史』, 전북역사문화학회, 2005.
- 김영장,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안동교통사무국 설치와 운영」, 『한국독립운동사연구』 62집,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8.
- 金麟坤, 「上海臨時政府의 樹立經緯」, 『사회과학』 4집, 경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1985.
- 유병호,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안동교통국과 怡隆洋行 연구」, 『한국민족운동사연구』 62집,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0.
- 이은영, 「獨立闘士 心汕 趙成珉의 漢詩 研究」, 『한문학보』 51집, 우리한문학회, 2024.
- 『동아일보』(1924.04.30.)(1925.05.14.)
- 『조선총독부 관보』 제0723호(1914.12.29.)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趙成珉>
- 국가보훈부(<https://mpva.go.kr/>) <독립유공자서훈 공적심사 일반기준>
- 공훈전자자료관(<https://e-gonghun.mpva.go.kr/>)의 『국가기록원 수집』, 각급 법원, 1929.
- 공훈전자자료관(<https://e-gonghun.mpva.go.kr/>)의 『독립운동사자료집 10 : 독립군전투사자료집』, 1976.
- 공훈전자자료관(<https://e-gonghun.mpva.go.kr/>)의 <朴濟雄>, <白德鉉>, <崔滄烈>, <許幹>, <許業>, <許柱>, <洪利寬> 공훈록과 <오학수> 판결문.
- 법제처(<https://www.law.go.kr/>)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s://db.history.go.kr/>) <문서철명 :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の 部-上海假政府 2, 「上海假政府 交通部特派員 檢舉에 관한 건」>

「心汕 趙成珉의 독립 활동 면모와 의의 고찰 - 獨立有功者 指定과 관련하여 -」에 대한 토론문

정은주(영남대)

본 연구는 경술국치 이후 상해임시정부를 떠나들며 독립운동을 전개했던 심산(心汕) 조성민(趙成珉)의 활동 면모를 살피고, 나아가 독립유공자로 지정되기 위한 구체적 요건을 정립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지난해 처음 학계에 소개되어 독립운동가로서의 심산의 명성과 행적이 알려진 이후, 그의 독립 활동 면모를 보다 면밀하게 고찰하여 동시기에 함께 활동했던 인물과 달리 독립유공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한 저자의 문제의식이 심화되어 구체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1. 이상의 문제의식에 기반한다면, 심산의 독립 활동을 시기별로 구분하여 그 공적(功績)을 분명하게 드러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심산의 독립 활동 행적이 문건을 통해 최초로 확인된 것은 1912년의 임자동밀맹단(壬子冬密盟團)의 단원으로 활동한 것입니다. 이후 1920년 상해로 건너가 임시정부에서 활동했으며, 이때 안동(단동)에서 체포, 국내로 이감되어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어 2년간의 옥고를 치렀습니다. 출옥 이후 1923년에 다시 중국으로 건너가 공교회(孔教會) 인사들을 만나 국권 회복을 위해 나섰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귀국합니다. 1930년에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국내에서도 독립운동을 지속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본다면, 심산의 독립 활동기는 다음 네 시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1) 1912년~1920년 국내 활동기
- (2) 1920년~1923년 상해 활동기(이후 1차 환국)
- (3) 1923년 중국 활동기(이후 2차 환국)
- (4) 1923년(?) 이후 국내 활동기

논문의 “2. 독립 활동 면모 3) 옥중시”는 지난해 심산의 한시 연구와 중복되는 부분이 적지 않고, 이때 한시는 문학적 측면 보다 심산의 독립 활동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되는 성격이 강합니다. 또한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가 ‘심산의 독립유공자 지정’이라는 점에서 본다면, “3) 옥중시”는 문학적 접근보다는 독립 활동기의 행적을 고찰하기 위한 객관적 자료로 활용하는 편이 어떨까 합니다.

2. <논문 3면>

임자동밀맹단 단원 22명 가운데 대부분 독립유공자로 지정이 되었는데, 심산을 비롯하여 정찬석·최제학 등등의 인물은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의 지정되지 않은 여러 인물 가운데 지정되지 않은 이유로 과학한 것이 있으신지, 그리고 심산과 동 시기에 활동했던 인물들과 관련하여 추가로 확인된 사실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3. <논문 4면>

1920년 안동현의 이륜양행에서 체포된 25명 중 형량을 언도받은 인물이 8명, 1924년 공소 기각된 인물이 16명입니다. 곧 체포된 25명 가운데 일제 판결문과 공소 기각 명단에 유일하게 이름이 누락된 인물이 심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심산이 이때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는 명확히 확인되지는 않는다.”, “심산과 이름이 나란히 나열된 두 사람의 예를 통해 심산에게 내려질 형량을 유추해 본다면 최소 홍이관·백덕현이 방조 혐의로 받은 1년 금고형과 동일한 형량이 내려졌음이 확실하다.”는 저자의 언급은 추정의 영역일 것이므로, 향후 독립유공자 지정과 관련한다면 보다 객관적인 추가 자료 확보가 필요해 보입니다.

4. “2. 독립 활동 면모”에서 심산의 1920년 안동현에서의 체포와 옥고에 대한 행적 이후, 1930년에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었다는 단편적인 사실 언급으로 마무리됩니다. 곧 1923년 중국에서의 독립 활동과 귀국한 이후 국내에서 사망 시까지 행적이 누락되어 있어, 향후 추가 사실 확인이 필요할 듯 합니다. 이 사안은 논문 12면에서 제시된 “<독립유공자서훈 공적 심사 일반기준>의 둘째, 독립운동 공적이 원천자료에서 확인됨을 원칙으로 한다. 셋째, 사망 시까지의 행적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와 상호 연결되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耻齋 李範世와 독립운동 인맥

김진균(동아시아한문학연구소)

1. 머리말
2. 이범세의 위상
3. 이범세의 교유 / 이범세를 통해 접근하는 독립운동 인맥

1. 머리말

본 연구팀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유럽 독립운동가를 발굴하고, 관련 문헌자료를 체계적으로 DB화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유림(儒林)’이라는 표기를 통해 식민지 시기 근대한문학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 것이다. 특히 근대에 활동한 독립운동가들 가운데 상당수가 전통 한문학의 작가이기도 하다는 점은, 이번 연구를 통해 명확히 확인될 수 있을 것이다. 한동안 근대 한문학 유산은 ‘한문학’이라는 이유로 근대 문학 전공자들로부터 외면받았고, 20세기에 창작된 텍스트라는 점에서 고전문학 연구자들의 연구대상에서도 소외되어 있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학술적 사각지대를 ‘독립운동가의 한문 자료’라는 새로운 분석 틀로 조망함으로써, 방대한 근대 한문 자료를 정당한 학문적 대상으로 포섭하는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나아가 이는 식민지 시기 한국 학술사에 대한 본질적 반성으로도 이어진다. 지금까지 한국학의 기본적 지표로 작용해 온 ‘근대성’ 개념이 전통학문의 가치를 특수하거나 예외적인 것으로 치부해온 한계를 지녔다면, 독립운동가들의 한문 자료는 근대 한국학에 내재된 근대성 중심 담론을 재검토하는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전통학문이 근대기에 미친 영향력을 한문 자료를 통해 실증적으로 조명함으로써, 한국 근대 학술사에 대한 반성적이고도 재구성적인 시야를 열 수 있을 것이다. 전근대 문어인 한문이 근대적 현상인 탈식민운동과 결합하여 빚어내는 양상을 통해 근대한문학의 새로운 담론을 모색해보고자 한 것이다.

사업의 실제 작업은 독립운동과 관련된 한문학 작가의 문집을 DB화하는 한편 그 DB를 메타데이터로 처리하여 거기에서부터 다양한 인물관계를 추출해보는 것이다. 우선 다뤄보는

이범세를 독립운동가라고 할 만한지는 아직 결정하기 어려우나, 이범세는 영향력 있는 독립운동가와 깊은 교유를 나누었던 사실이 이미 학계에 보고되어 있다. 이범세의 문집을 DB화하고 메타데이터 처리를 마쳐서 다른 DB들과 관계를 갖게 만들면, 어떠한 독립운동 인맥이 발견될지도 아직 판단할 수는 없다. 이 발표문을 통해 발견의 가능성을 짐작해보고자 한다.

李範世(1874~1940)는 耻齋라는 호를 사용하였다. 대한제국기에 관료 생활을 하다가 식민지시기가 시작되자 부친을 모시고 양근(양평) 세거지로 귀향하여 농사를 지으며 살 때부터 부끄럽다는 뜻의 치재로 호를 삼았다고 하는데, 부모 봉양의 책임을 저버리지 못하여 일본 제국주의 침략에 대해 적극적 저항에 나설 수 없음을 부끄러워하던 마음을 담았다고 하였다.¹⁾ 그의 외동딸 이석희 여사의 증언에 의하면 명절에도 나라 잃고 켜 호사냐며 소반에 김치만 올리게 했다고 하며,²⁾ 이상설·이건승 등과 함께 독립운동 일선에 뛰어들지 못한 것이 부끄러워 호를 고쳤다고도 한다.³⁾ 치재라는 호를 통해 이범세가 식민지시기에 소극적으로나마 반일 정서를 유지하였던 한편 적극적으로 망명 투쟁을 전개한 지인들에 대한 부채감을 갖고 있었던 것을 짐작해볼 수 있다.

그렇다고 그가 반일 정서를 철저히 고수하며 친일 인사들을 외면하기만 했던 것도 아니며 총독부에 일절 대응을 한 한 것만도 아니었다.⁴⁾ 이범세는 소론 명문가 출신이었고, 구한말의 관료였으며, 근대계몽기의 계몽활동가였고, 식민지시기 양평에서 농업과 사업을 운영하다가 <시대일보> 사장으로 언론에 등장하기도 한다. 널리 알려진 망명 독립운동가들과 형성되어 있던 이범세의 인맥은 대부분 이러한 출신 및 활동으로부터 연어진 위상과 관련되어 있다. 본 발표문에서는 이범세의 위상을 정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그의 교유를 분석하여, 새로운 독립운동가를 발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보고자 한다.

2. 이범세의 위상

이범세는 1874년에 태어났다. 부친은 이중하(李重夏, 1846~1917)로 외무부협판과 내무부협판 등의 주요 관직을 지냈으며, 이토 히로부미의 외도가 개입된 관직을 거절하기도 하고 합방 이후에는 일제로부터 수여된 은사금을 거절하고 양평 고향으로 돌아갔다.⁵⁾ 이중하의 마지막 벼슬은 奎章閣提學이었는데, 문장을 잘한다는 명망이 있었다. 이범세 역시 문장을 잘하

1) 이은영, 「치재 이범세의 생애와 교유」, 『국제언어문학』36, 2017, 415면.

2) 「애국지사 이범세 선생의 외동딸.. 올해 100세 이석희 여사에 듣는 설」, 『동아일보』, 2013.2.8. (다음 뉴스 <https://v.daum.net/v/20130208032606554>)

3) 정인보 저·정양란 역, 『담원문록』상, 2006, 271면의 주석 19번에 이범세의 따님 이석희 여사의 증언에 의한다는 기록이 있음.

4) 이은영은 식민지시기 이범세의 삶을 ‘망국민으로서 저항적 삶’(이은영, 앞의 논문, 410면)으로 규정하며 철저한 비타협적 면모를 부각하였는데, 본고에서는 이범세가 국내에서 활동하면서 친일 인사와 항일 인사를 넘나드는 폭넓은 교유를 가졌다는 점을 이해해보려 한다. 이런 교유의 중심에서 오히려 새로운 독립운동가 인맥이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5) 이은영, 앞의 논문, 414면.

여, 부자지간이 모두 문장으로 이름이 났었다.

치재 이범세 공은 탄재 이중하 상서의 아들이다. 상서공은 이름이 문원에서 높았고, 치재공 역시 가풍을 이어 일찍부터 문장을 잘 한다는 이름이 있었으니, 사람들은 더러 부친을 넘어섰다고 하는 말을 하였다. 내가 말하였다. “상서공은 집이 가난했지만 땀감과 쌀을 구하는 일에 마음 쓰지 않았고 또 40이 되어서야 벼슬을 하였으니, 오로지 문장에만 마음을 쓴 것이 이십 여년이 된다. 치재공은 20이 되기도 전에 벼슬을 하여 관직에 있던 날이 많았다. 상서공이 사방으로 명을 수행하러 다니느라 집에 있던 날이 적었는데, 치재공에게는 형제나 숙질도 없어서 집안일을 대신 맡아줄 사람도 없었다. 그러므로 집안일과 관직일 사이에서 오로지 문장에 마음을 쓸 수 없었다. 경술년 나라가 망한 뒤에 상서공을 모시고 양근의 촌가로 돌아가서 농업으로 생계를 삼았고, 상서공이 돌아가셨을 때에는 치재공도 머리가 이미 쇠었다. 그러므로 치재공이 하늘이 부여한 능력은 상서공과 같다 하더라도, 독실하게 공부한 것은 미치지 못한다. 부친을 넘어섰다는 말은 맞지 않을 듯하다.” 공이 듣고는 “이것은 우리 부자를 진실로 알아서 하는 말이다.” 하였다.⁶⁾

『치재유고』의 서문은 연희전문학교에서 동양사를 강의하던 鄭寅書가 작성하였는데,⁷⁾ 정인서는 이범세의 큰 매제외 동생이었다. 정인서의 평가로는 이범세의 문장 실력은 부친보다 부족하다고 하였다. 요는 이범세가 관직 생활을 일찍 시작하고 나중에는 가산을 관리하느라 문장 공부에 집중할 틈이 적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범세는 1889년 만15세에 문과 급제 후秘書院丞, 掌禮院掌禮 등의 주요 관직을 지내는 한편으로 『文獻備考』와 『國朝寶鑑』의 편찬 관리로 임명되기도 하였으며 마지막 관직은 규장각부제학이었으니,⁸⁾ 정인서의 서문대로 이범세도 문장을 잘한다는 평가가 있었을 것이나, 15세 무렵부터 관직에 올라 문학 공부에만 집중할 시간은 적었을 것이다. 그리고 부친을 모시고 양평으로 돌아간 뒤로는 직접 농사를 지었으니 더더욱 공부에 집중할 시간이 적었을 것이다. 그런데 정인서가 이중하와 이범세 부자간을 비교하면서 부친은 땀감과 쌀에 신경 쓰지 않으며 문학을 집중해서 공부했고, 자세는 농업으로 생계를 삼아 문학 공부에 여가가 적었다는 내용은 심상히 지나칠 내용으로 보이지 않는다. 우선 집안 어른으로 망명해 있던 이견송이 심상히 지나치지 않았다.

저는 상전벽해를 겪은 뒤로 여기에 머무르며 온갖 생각이 모두 사그라졌습니다. 오직 집안 재력이 점점 위축되고 노친을 봉양할 방법이 없어서, 이에 열 마지기 논과 하루같이 밭을 구입하여 집 앞뒤로 갖추었습니다. 드디어 부지런히 농사지를 개척을 세웠으니, 그 수확은 세금 징수에 충당하고 나머지로 대략 궁핍을 보완할 것이며, 문앞의 몇 뼘 틈에 왕골을 심고 수천 뿌리를 수확하여 손수 자리를 조금 짜야겠다고 말입니다.⁹⁾

6) 鄭寅書, 「耻齋遺稿序」, 李範世, 『耻齋遺稿』, 1a~1b면, “耻齋李公, 坦齋尙書之子也. 尙書公, 名高文苑, 公亦承家早有文名, 人或有跨竈之稱. 余曰, ‘尙書公, 家貧而不以桂玉爲心, 且釋褐於强仕之年, 專意治文章者二十餘年矣. 公則弱冠前已釋褐, 應官之日多. 尙書公, 八廩使命, 在家之日少, 公無兄弟叔侄, 可以替幹蠱者, 故家事及官事間之不能專意於文章. 庚戌屋社以後, 奉尙書公歸楊根丙舍, 治農爲生, 尙書公卒, 而公亦鬢髮已衰矣. 故公與尙書公, 天賦同, 篤學則不及焉. 跨竈之言, 恐不稱也.’ 公聞之曰, ‘此眞知吾父子之言.’”

7) 漢陽學人, 「新進學者 總評(一), 延禧專門學校 教授履」, 『삼천리』 제10호, 1930.11.1.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s://db.history.go.kr/id/ma_016_0100_0140)

8) 이은영, 앞의 논문, 411~413면.

이건승의 편지가 남아 있지는 않지만 이범세의 답신에 의하면 손수 농사지으며 자리를 짜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李建昇(1858~1924)은 이범세에게 쥔신 삼고 자리 짜는 도구를 갖다 버리고 古文 공부에 힘쓰라고 하였던 듯하다. 이건승이 농사짓는 일보다 고문을 공부하는 것이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설득하는 논리는 후세에 불후의 이름을 남길 수 있다는 점이 었다. 크게 불후의 이름을 남기지 못하더라도 작게는 공부 자체에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¹⁰⁾ 위 인용문은 이러한 이건승의 설득 편지에 대한 답장으로 자기 입장을 설명하는 이범세의 논리 전개 부분이다. 우선 농사는 노천을 봉양하고 세금 내기 위해서라고 하였다. 이 정도의 현실적 이유를 들고 말았다면 자기변명의 의미를 넘어서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이범세는 자기변명을 넘어서서 이 시기에 고문 공부를 하고 싶지 않은 이유에 대해 적극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

적이 지금 세상에서 문장 잘한다는 사람을 보면 손가락으로 셀 수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문장을 끼고 기꺼이 적에게 부역하고, 어떤 사람은 춤고 배고픔을 못 이겨 받으면 안 되는 녹봉을 받으며 겨우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梅泉이 되거나, 滄江이 되거나, 執事가 되는 것입니다. 저자들은 남들에게 욕을 먹고, 이분들은 제 몸을 괴롭게 합니다. 이것은 대개 제가 할 수도 없고 또 하고 싶지도 않은 것입니다. 불후를 또 어찌 쉽게 말하겠습니까.¹¹⁾

굳이 文以載道의 표현은 나오지 않지만, 이범세에게 있어서 문장은 도덕을 담보하는 것이다. 이건승이 고문 공부에 힘쓰라고 한 뜻도 역시 눈앞의 생계보다는 후세에 불후의 이름을 남길 도덕을 담은 문장을 추구하라는 뜻이 있었던 것이니, 이범세는 그 뜻을 정확히 되짚어 도덕을 담보하는 문장을 추구하고 싶지 않은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문장을 잘 한다면 당연히 그 문장에 담긴 도덕이 실천되어야 하는 것인데 문장을 잘 한다고 이름이 난 손꼽힐 만한 사람들이 적극적 천일파가 되거나 소극적으로라도 총독부의 월급을 받는 자리에 가는 것은, 문장의 가치가 땅에 떨어진 증거가 된다. 반대로 천일파가 되지 않으려면 梅泉 黃玹처럼 自靖하거나, 滄江 金澤榮이나 耕齋 李建昇처럼 亡命하여 총독부 치하를 벗어나는 길이 있지만 너무 고통스러운 길이다. 그리하여 고문은 공부할 수도 없고 공부하고 싶지도 않은 것이라고 적극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인용문 마지막의 “불후”는 바로 그 도덕으로 완성된 문장의 가치를 말하는 것이다. 쉽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은 말하지 않겠다는 말이 된다. 이건승의 설득에 정면으로 부딪히는 듯하다.

그러나 이범세의 뜻이 고문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으로 읽혔다면 이건승이 다시 편지를 보

9) 李範世, 「上耕齋宗文書1」, 『耻齋集』, 112b, “世自經滄桑來, 寓于此, 萬念都灰, 惟是家力漸絀, 親老無以爲養. 乃買水田可種稻十斗者, 旱田一日耕, 俱在屋前後, 遂孜孜爲農計, 其所收應稅斂, 外租可補乏. 門前有數笏隙地, 種莞可得千餘根, 手自織席若干.”

10) 이범세, 같은 글, 112a, “向蒙盛誨, 諭以撤去捆屨織席之具, 用功於古文. 大可以圖不朽, 下不失自娛.”

11) 李範世, 「上耕齋宗文書1」, 『耻齋集』, 113b, “竊觀當世能文者, 可屈指而數也. 或挾其文辭甘心附賊, 或爲飢寒所迫偷錄苟活, 不爾則爲梅泉, 爲滄江, 爲執事耳. 以彼則爲人唾罵, 以此則自苦其身也. 此皆世所不能爲, 亦不欲爲耳. …… 顧今蟹行文勢壓蒼頡字, 廢祧斯文之說, 公傳於世人之口, 斯文之安危如此, 況區區文章耶. 此所爲無欲爲之心者也. 不朽又豈易言哉.”

내 설득하려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법세의 편지는 오히려 고문의 절대적 도덕적 우위를 전제로 하는 글이다. 그것을 제대로 추구하면 육체적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고, 기능적으로 활용하려고만 하면 정신적 타락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고통과 타락을 모두 견디기 어려워서 아예 고문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양심을 지닌 사람인 동시에 육체를 지닌 한 사람의 지식인으로서 매우 현실적인 하소연이다. 편지를 받는 이견승이 이법세를 한번에 설득시키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가치 있는 고문을 추구하며 망명 생활의 고통을 감내하는 이견승 자신의 위상을 인정하는 이법세의 내면을 확인할 수는 있었다. 고통의 길이라 하더라도 불후의 길을 함께 가자는 뜻을 가르칠 만하다 판단했을 것이다. 두번째 편지 역시 남아 있지 않지만 농사를 그만두고 고문에 집중하라는 편지를 다시 적었던 듯하다.

문인이라고 불리는 자들이, 더러 제 몸을 다스리는 데에 엄격하지 못하면서 문인이라 하고, 허술하게 일을 처리해서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서 문인이라하고, 데면데면 사람들을 대하여 믿지 못하면서 문인이라 하고, 헛소리를 남들이 웃으며 받아준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문장을 하면서도 이러하다면 비록 그 뺄어놓은 말이 주옥같고 그 내면의 언어가 비단과 같다고 하더라도, 세상에 무슨 보탬이 되겠으며 그 말로 문장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효음이 되어 불후가 될 수 있겠습니까?¹²⁾

다시 당대의 문인들이 보이는 비도덕성과 무능을 지적하며, 지금의 문인이 문장으로 불후가 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는가 하고 되묻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이법세는 문장을 제대로 추구하는 자는 제 몸을 엄격하게 다스리고 일을 꼼꼼하게 제대로 해내고 타인을 성실하게 대하여 믿음을 주는 존재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런 존재의 문장이 입언이 되고 불후가 될 수 있다는 신념을 바탕에 깔고 있으면서, 당대의 문인들이 문인을 표방하면서도 그 정반대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문인이라는 호칭이 주는 도덕적 우월성을 신뢰하고 있으며, 그 신뢰를 깨는 현실의 부정적 인물에 대한 증오심이 깔려 있는 것이다. 여기까지만 읽으면 적어도 편지의 상대방인 이견승에게는 아직 비판이 겨냥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견승은 육체적 고통을 감내하며 양심을 찾아 망명한 사람으로 문인이라는 호칭을 받아도 될 만한 사람의 부류일 것이다. 그런데 이 두 번째 편지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또 고문을 한다는 사람은 매양 옛 사람의 옛 도를 스스로 기약하며 죽을 때까지 골몰하여 오직 옛 것만 강구합니다. 지금 세상을 돌아보면 지구는 뒤죽박죽 바다는 넘쳐흐를 지경이며 기풍과 습속 및 인정과 세태가 날마다 달라지고 시각마다 변하는 것이 마치 달리는 듯 마치 내닫는 듯하여, 듣고 보는 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눈은 휘둥그레 입은 헤벌쭉 다물어지지 못하게 합니다. 이러한 때를 만나 한갓 고문을 통해 떨어진 옛것을 찾아가는 단서를 찾는다고 해서 날뛰는 물결을 막을 수 있을는지요? 진실로 강개하여 시대를 걱정하는 선비라면 오늘의 급무를 강구하며 때에 따라 적당한 것을 만들어야 합니다.¹³⁾

12) 李範世, 『上耕齋宗文書2』, 『耻齋集』, 115a, “號爲文人者, 或有律身不能嚴而曰文人, 坦率遇事不能辦而曰文人, 疎闊與人不能信而曰文人, 放誕人既笑而容之, 亦復自認而不以爲恥. 使爲文而如是, 則雖咳唾珠玉, 心肚錦繡, 將何保於世, 以其言爲文, 則其能立而不朽乎.”

여기에서 이견승과 이범세의 고문에 대한 평가가 결정적으로 갈라지는 대목이 발생한다. 이 인용문의 앞 부분까지는 이범세가 고문의 도덕적 가치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으로 현실의 부정적 반면교사들에 대한 비판만 제기하고 있었지만, 여기서부터 고문에서 당대 현실의 시의성을 전혀 인정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시시각각 급변하는 세상을 긴박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편지에서 문학적 수사를 동원하여 가장 힘주어 서술한 부분으로 보인다. 그만큼 변화된 현실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다. 그리하여 옛 사람의 옛 도만을 평생 골몰하여 공부하는 태도는 때에 맞는 적당한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된다. 농사를 그만두고 고문을 공부하여 불후의 문장을 남기도록 노력하라는 이견승의 가르침을 예외바르고 문학적으로 그러나 단호하게 거절하고 있다. 그렇다고 이견승과 거리가 떨어진 것은 아니었으니, 이견승은 “우리 집안에 기특한 선비 있으니, 뜻을 꺾고 골목에 숨어사네. 가슴 속엔 속된 욕망 없고 벼들 강가에서 눈에 푸름을 가득 담았네.”¹⁴⁾라고 하여 전원에 은거하며 사는 이범세의 도덕성을 확인하고 있으며, 이범세도 “내게 고문에 힘쓰라고 권하며 불후의 문장을 남기라고 하셨으니, 어찌 내가 능해서였겠는가, 사랑해주심이 두덜기에 그렇게 하신 것.”¹⁵⁾이라 하여 시의를 인정할 수 없는 가르침이지만 이견승의 호의에서 비롯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이범세는 양심과 현실의 줄타기에서 인시제의(因時制宜)의 가치를 무게중심을 잡기 위한 부채처럼 들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범세는 때에 따라 적당한 것을 만들어 내는[因時制宜] 계몽활동에 데에 직접 나서기도 하였다. 근대계몽기에 기호흥학회와 대한협회 등 계몽단체에 각종 임원을 지내기도 하고,¹⁶⁾ 직접 글을 써서 계몽에 나서기도 했다. 기호지역 사립들이 기득권을 버리고 계몽활동에 투신할 것을 권유하기 하였는데, 당시 계몽운동의 중심 담론과 다를 바 없이 경고의 어투를 국한 문헌용체에 담았지만 토씨만 빼면 거의 고스란히 한문문장이 되는 문체이다.¹⁷⁾ 이듬해 학생들에게 당부하는 글은 순한문문장이었다.

바라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이 생각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더욱 열심히 공부하고, 지식을 넓히기 바랍니다. 백척간두에서도 백걸음을 나아가고, 한 삼태기 흙을 모아 높은 산을 이루며 이 구구한 소망에 부합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단지 저 한 사람만의 바람이 아닙니다. 전국의 인사가 여러분에게 거는 기대이기도 합니다. 부디 그 뜻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¹⁸⁾

13) 李範世, 같은 글, 115b~116a, “且爲古文者, 每以古人古道自期, 矻矻窮年惟古是講. 顧今寰宇震蕩滄海橫流, 風氣俗尚人情物態, 日異時變, 若馳若驟, 見聞所及, 今人目瞠口呿. 當是之時, 其能徒以古文尋墜緒, 而障狂瀾乎. 苟有慨然憂時之士, 講究今日之急務, 因時制宜.”

14) 李建昇, 「士儀承宣(範世)次余送從子還國詩韻復用其韻而和之」, 『海耕堂收草』 卷4, 51b면, “吾宗有奇士, 降志隱巷陌. 方寸無俗物, 楊江滿眼碧.”

15) 李範世, 「祭耕齋宗文文」, 『恥齋集』, 123b면. “勉余古文, 俾圖不朽. 豈謂余能, 由愛之厚.”

16) 기호흥학회월보, 대한협회회보 회원명부 사고 등 (보안 필요).

17) 李範世, 「警告我畿湖人士」, 『기호흥학회월보』 제2호, 1908.09.25., 22~24면.

18) 李範世, 「寄畿湖學校學生諸君」, 『기호흥학회월보』 제6호, 1909.01.25., 11~12면, “惟願諸君將此一念, 釘着腦髓, 益加勉勵, 開發知識, 竿進百步, 簣成九仞, 以副此區區之望焉. 此非但僕之所望也. 實是全國人士之所期望於諸君者也. 惟諸君諒之.”

대한제국의 관료 생활을 그만두는 1909년 『기호흥학회』에 기고하여 기호 학생 제군에게 당부하는 내용의 글을 발표한다. 범범하게 공부 열심히 하라는 말로 마무리된 듯하지만, 이 앞의 맥락에서 권력욕과 재물욕을 목표로 삼거나 일신의 조그마한 안락을 목표로 하지 말고 멀고 큰 목표를 세우라고 권고하였다.¹⁹⁾ 그것은 “수천 년 역사 속에서도 지금처럼 나라가 무너지고 국민이 고통받는 적이 또 없으며,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피와 기운이 있는 이라면 누구나 이 현실에 마음 아파하고 스스로 펼쳐 일어날 방법을 고민해야 하는”²⁰⁾ 인시제의(因時制宜)의 태도에서 나온 것이다. 권력의 중심에 서거나 가족과 재물을 자랑하거나 자기 자신의 생계에만 치우치는 등 현실에서 목도하는 반면교사들을 구체적으로 떠올리고, 시대의 요구에 공동체를 위해 나서는 태도를 학생들에게 환기시키는 것이 이 시기 이범세의 인시제의였다.

우리 기호 지방은 역대 여러 임금님들의 각별한 은혜의 교화 아래 500여 년 동안 안정과 복락을 누려왔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은혜 아래 교육받은 사람들이 아닙니까?²¹⁾

이범세는 1909년 9월 『국조보감』 편찬을 마무리하고 규장각 부제학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관직 생활을 마무리했으며 10월에 태극장을 하사받는다.²²⁾ 이 글을 쓰는 1909년 1월은 아직 관직생활을 하고 있던 때였다. 공동체의 위급함에 펼쳐 일어나야 하는 의무를 저버리면 안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조선왕조에서 각별한 혜택을 주었던 기호지방 출신의 학생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은, 왕조의 관료로서 당연한 현실적 맥락이기도 하였을 것이다. 공동체의 위기에서 왕조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은 이범세에게 또 하나의 인시제의이며, 현실 타협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범세는 앞서 인용한 「경제 이견승에게 올리는 글1」에서 농사를 지어 얻은 소출로 두 가지를 한다고 하였는데, 하나는 세금 징수에 충당하고 하나는 그 나머지를 부족한 살림에 보탠다고 하였다. 이 세금은 조선총독부에 납부하는 것이다. 식민지 조선에 살면서 지주로서 총독부 정부에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길이였겠지만, 세금을 굳이 거둔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 피할 수 없어 너무도 당연한 일을 굳이 적으면서 아무 비판적 견해도 달지 않은 것은 무의식적으로나마 현실 타협적 태도가 노출된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이범세는 좀더 총독부 권력에 협조하는 일이 있었다. 道評議員을 지낸 것이다. 1919년 3.1 운동 직후 조선인의 정치참여 욕구를 부마하기 위해 지방행정기관에 자문기원을 만들어 조

19) 李範世, 「寄畿湖學校學生諸君」, 11면, “然諸君之刻意從事于是者 必有其志之所在 其志可得聞歟 世有官位高顯 威勢赫赫 車馬僕從 前擁後遮 揚揚於道路者 諸君 其有志于是乎 又有多積黃金富豪 一時煖衣飽食 妻子煦煦相樂 不知戶外風雪者 諸君其有志于是乎 不然 志在判住一窠 或爲人教師 霑數十圓月銀 以資目前之資 活乎 僕謂 其行苦者 計之者 深其守確者 期之者遠 今見諸君 行苦而守確 僕知諸君 決不志乎 此數者也”

20) 李範世, 같은 곳, “往古數千年以來, 有如今日我韓者乎. 今日凡爲我韓人種, 苟有血氣者, 莫不痛心 思所以自奮.”

21) 李範世, 같은 곳, “我畿湖偏被 列聖朝幃幃之化 五百有餘年 安享 福利. 諸君 亦非其化育中物耶”

22) 이은영, 앞의 글, 413면.

선인이 이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들어낸 것이 도평의원 제도이다.²³⁾ 도평의원은 관선과 민선으로 나누어 뽑았는데, 이범세는 민선으로 선출되었으므로 스스로 출마한 것으로 보인다.²⁴⁾ 일본제국주의가 식민지 조선의 경영을 위해 조선인을 참여시켜 합의를 통해 지배를 순조롭게 실현하는 것이 총독부의 의도대로 안정적으로 실현되기만 한 것은 아니었고,²⁵⁾ 1920년 말에 선출되어 1921년 봄에 사직하였으나 오래 한 것도 아니었지만,²⁶⁾ 평의원으로 나서는 순간 황현과 창강과 경제의 길과는 조금 어긋나는 길에 들어서게 된 것이다. 이범세는 경학원 강사를 지낸 呂圭亨(1848~1921)과도 단절하지 않았고²⁷⁾ 총독부 정권에서 도지사까지 지내는 유명한 권일과 朴榮喆(1879~1939)과도 친밀하게 지냈으며, 『반도시론』을 통해 소극적으로 권일 색채를 드러낸 尹喜求(1867~1926)와도 자주 교류하였다.²⁸⁾ 대한제국기 고위관료 출신으로 총독부 치하에서 일정한 규모의 집안을 유지하는 데에는, 이 정도의 현실적 타협은 필요했을 듯하다.

1925년 10월 25일 『매일신보』에는 이범세가 李起鍾과 함께 개성에서 선죽교 등을 관광하고 다음날 경성으로 떠났다는 기사가 나 있다.²⁹⁾ 이 해에 이범세는 『시대일보』 사장으로 등장하여, 당시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었던 것이다.³⁰⁾ 『시대일보』는 당초 1923년 최남선이 『동명』을 이어 창간했다가, 자금난으로 보천교가 인수하였다가 경영에 말썽이 생겼고, 이때 이범세 등 10여인이 재단을 구성하여 인수하였던 것이다. 사장이 洪命熹(1888~1968)로 된 적도 있었고, 이범세가 사장으로 된 적도 있었으며, 이기종과 이범세가 동업 사장으로 된 적도 있었다. 이때 홍명희와 각별한 인연이 형성되었을 듯하다. 『시대일보』는 1926년 이상협이 인수한 뒤 『중외일보』로 세호를 바꿨다.

1927년 新幹會 운동에도 참여한다. 신간회 운동은 비타협적 민족통일운동이며 사회주의자와 민족주의자들이 연합한 최대 좌우합작운동인 동시에 합법적 대중 조직을 표방한 운동이었다. 1929년 신간회 경성지회장을 맡기도 했다. 신간회의 창립에 실질적인 주도는 홍명희가 맡았다. 특히 1929년은 홍명희가 광주학생항일운동의 전상 규명을 위한 민중대회 사건을 주도하다가 사전 검거되기도 하였다. 이범세의 신간회 활동은 『시대일보』사 인수 무렵 교유를 맺은 홍명희와의 관계가 각별히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해도 과히 어긋나지 않을 듯하다. 이범세는 이후 경성에서 지내다가³¹⁾ 1940년에 사망했다.

이범세는 그의 부친과 더불어 한문 문장에서 명망을 갖고 있었고,³²⁾ 대한제국기 고위 관료

23) 박찬승, 「1920·30년대 식민지 조선·대만에서의 지방제도 개정 비교」, 『동아시아문화연구』 89집, 2022, 103면.

24) 「도평의원」, 『매일신보』 1920.12.21. 2면8단.

25) 김동명, 「1928년 전라남도 도평의회의 조선인과 일본인 알력 사건 연구」, 『한일관계사연구』 제46집, 2013, 160면.

26) 「도평의원보궐선」, 『매일신보』 1921.2.17. 2면 6단. 기사 내용은 이범세가 사표를 내어 도평의원 보궐선거를 치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27) 李範世, 「是歲秋, 又至京, 呂荷亭丈, 邀飲于清凉寺, 各賦秋日聯句三十韻」, 『耻齋集』, 8a면 등 주고 받은 시; 鄭寅普 저, 정양완 역, 『荷亭呂公墓表』, 『담원문록』 상, 269면.

28) 李範世, 「朴多山見邀夜飲」, 『치재집』 85a면 등; 윤희구는 15면, 32면에 화답시가 있으며 207면에 묘갈명이 있음.

29) 「지방인사」, 『매일신보』 1925.10.12. 3면8단.

30) 「재경언론기관일람」, 『개벽』 63호, 1925.11.1., 86면.

31) 정인보, 「태암회심집 서」, 『담원문록』 상 322면.

를 지냈으며, 근대계몽운동에도 일정하게 참여하였고, 총독부 정권에서 도평의원을 지내는 등 약간의 현실 타협적 선택을 하였으며, 시대일보의 사장과 신간회 경성지회장을 맡는 등 민족 운동의 주요 현장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이러한 이범세의 활동은 이범세의 교육 범위를 확장하는 데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이범세의 인맥을 통해 볼 때, 독립운동은 망명과 국내라는 이분법적 구도로만 이해될 수 없는 복합적인 양상을 띠고 있었다. 그의 친밀한 동지들이 망명을 통해 적극적인 항일 활동을 펼친 반면, 이범세는 가족이라는 현실적 제약 속에서 국내에 남아 다른 형태의 삶을 이어갔다. 이범세가 국내에 남아있던 인물들과 형성한 네트워크는 직접적인 무장 투쟁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에서 최소한의 양심을 지키는 분들에게서부터 적극적 친일분자까지 스펙트럼이 다양하다.

3. 이범세와 독립운동 인맥

망명 독립운동가들과의 교육 양상

李相畵(1870~1917). 이범세와 이상설은 1885년부터 新興寺에서 한학, 수학, 영어, 법률 등 신학문을 함께 공부한 어린 시절부터의 절친한 동지였다. 이범세는 이상설이 번역한 일본 법률서의 한문 번역본에 발문(「書溥齋手筆漢譯日文六法全書後(代朴也園)」³³⁾을 썼는데, 여기서 이상설과 자신 사이의 교육에 함께하는 인물들을 나열하였다. 呂準(1862~1932)과 李會榮(1867~1932)은 이역에서 이미 죽었고, 李始榮(1869~1953)은 해외에서 떠돌고 있으며 이범세와 李喜鍾(1876~1941)만 옛 땅에 남아 있다고 하였다. 이 글은 也園 朴喆熙(1877~1944)를 대신하여 쓴 글이므로 박철희도 옛 땅에 남아 있는 사람으로 적을 수 있을 것이다. 앞서 본 이범세의 따님의 증언에 의하면, 이상설은 이범세의 호 耻齋와 관련되어 있다. 이범세는 이상설의 죽음을 기리며 「哀溥齋」(103b~104a면.)를 지었다. 李始榮, 呂準, 李會榮 등의 친구들에게도와 회억의 대상으로 다뤄진다(104b~106면).

金澤榮(1850~1927)과는 편지로 화답시를 주고받았으며(12a면), 이견승과는 편지와 화답시를 주고받았다.

高東柱(?~1916), 『三悔堂遺稿序』(148면), 이범세의 서문에 의하면 국망 후 호남의 포의로서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주는 하사금을 거절하여 구류를 살았다. 高敬命(1533~1592)의 후손으로 이중하와 친분이 있어 이범세도 간혹 만났다고 하였다. 그가 평소 수업이 곳곳에 설 정도의 풍모를 읽어볼 수 있다고 하였다. 독립유공자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다.

李敏應(1876~1955) 大訥 노상익과 만주로 망명해서 활동하다가 귀국했던 壽春 이민웅을 莚堂 金公植과 함께 만나 화답시를 주고 받는다.³⁴⁾ 이민웅이 독립유공자로 지정된 만한지는

32) 앞서 본 「경재 이견승에게 올린 편지」에서 이범세 자신이 고문과 절연할 것처럼 적었지만, 이범세는 당시 문장으로 손꼽히며 추앙받는 존재였던 것으로 보인다. 정인보의 글에서는 어느 시골 노인이 김영한과 더불어 훌륭한 문명이 있는 두 사람 중 한 사람으로 꼽는 장면이 나온다. (정인보 저, 정양완 역, 「巷憂老人 生壙 刻石」, 『담원문록』 하, 45면.) 이범세가 고문에서 자질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이견승이 그런 편지를 굳이 보낼 이유도 없었을 것이다.

33) 이범세, 『치재집』, 149b~150a면.

아직 판단하지 못하지만, 한 때 총독부 치하를 거부하고 망명에 나섰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金甯漢(1878~1950, 호 東江)과 朴豊緒(1868~1940, 호 稼軒)는 이범세와 절친한 관계로 수십 건의 화답시가 남아 있다. 李喜鍾(1876~1941, 호 松居)은 이범세의 족질인데 앞서 이상설과 함께 공부한 사이이기도 했다. 이희종은 이범세, 박철희와 함께 독립자금을 모아 보내기도 하였다고 한다.³⁵⁾ 특히 김영한과는 공동시집 『苔岑會心集』³⁶⁾과 『蓉梧遊箋』³⁷⁾을 내기도 하였고, 정인보는 이 네 분의 사이를 특별히 각별한 것으로 그려내고 있으며, 망국의 문학으로서의 울분을 읽어내고 있거나 혹은 울분을 함께 나눌 만한 분들로 표현하고 있다.³⁸⁾ 이 분들의 경우에도 다른 근대 문헌자료와 메타데이터로 연결되면 새로운 활동과 가치가 확인될 수 있을 것이다.

鄭寅普(1893~1950)는 이미 독립유공자로 지정된 분으로 정인보는 문집에서 이범세에 관해 여러번 언급하고 장사지낸 다음날의 감흥을 적은 시와 광지명 뒤에 적는 글 등 이범세의 죽음에 관해서도 각별히 기록하고 있다.³⁹⁾ 이 각별한 기록들이 새로 DB화된 자료들과 연결되면, 자료의 의미가 새롭게 부각될 수도 있을 것이다.

34) 이범세, 「金莞堂公植 李壽春敏應 月夜見訪 仍分雪月梅三字賦...」, 『치재집』, 6a면.

35) 김영복, 「(10) 한역 육법전서 초고」, 『법률신문』 2012.2.6.

(<https://www.lawtimes.co.kr/opinion/62123>)

36) 정인보 저, 정양완 역, 「태잡회심집 서」, 『담원문록』 상, 323면.

37)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38) 정인보 저, 정양완 역, 「치재 이공 광지명 뒤에 적다」, 『담원문록』 상, 493면; 「태잡회심집 서」; 「보재 이상설 공이 이미 돌아갔으므로...」, 『담원문록』 상 419면.

39) 정인보, 위의 글 ; 「치재 어른 장사지낸 다음 날 짓다」, 『담원문록』 중, 451면.

김진균 선생님의 “치재 이범세와 독립운동 인맥”에 대한 토론문

조상우(단국대)

김진균 선생님의 발표문은 “독립운동과 관련된 한문학 작가의 문집을 DB화하는 한편 그 DB를 메타데이터로 처리하여 거기에서부터 다양한 인물관계를 추출해보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그리고 그 대상이 바로 치재 이범세입니다.

현재 고전문학과 한문학 연구는 아직도 서울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방에 있는 알려지지 않은 많은 한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새로 발굴되는 한학자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연구 대상에서 많이 제외되고는 합니다.⁴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합니다. “한자로 썼다고 다 한시이고 한문학 작품이나”라고요. 그러나 이러한 평가는 후대의 연구자들이 할 일이고 아직은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을 많이 밝혀서 세상에 알리는 것이 더 시급한 일입니다.

오늘 김진균 선생님의 발표는 이러한 점에서 아주 의미 있는 작업입니다. 선생님과 이 사업단에서 하는 작업에 대해서 심분 동감하면서 토론자의 의미를 다하기 위해 발표문을 읽다가 들었던 질문 몇 개를 하면서 토론자의 임무를 다하고자 합니다.

첫째, 치재 이범세는 15세에 과거에 급제를 했는데, 그 부친과의 문장 능력 비교만 서술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범세의 스승에 대한 언급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된 서술이 남아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치재 이범세가 『기호흥학회』 기고한 글을 보면 “기호 학생 제군들에게 멀고 큰 목표를 세우라고 권고”하고 있는데, 이는 앞에서 보여준 이견승과의 편지 내용과는 다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해서 선생님은 “대한제국기 고위관료 출신으로 총독부 치하에서 일정한 규모의 집안을 유지하는 데에는, 이 정도의 현실적 타협은 필요했을 듯”하다는 서술을 하셨는데, 이렇게 이범세가 <시대일보> 사장을 하는 등 변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셋째, 오늘 발표문에서 중요한 것은 독립운동의 인맥인데 독립운동을 한 인물들이 다소 등장은 합니다. 그런데 정작 독립운동과 관련한 내용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견승과의 편지 내용도 문장과 관련한 일반적인 문인들의 글이라 생각합니다. 이범세의 독립운동 인맥을 얘기하려면 이 인물들과 함께 한 독립운동 내용이 글로 남아 있어야 본 발표문의 의미가 있을 것

40) 소눌 노상직만 해도 부산, 김해, 밀양에서는 추앙받는 큰 학자이지만, 서울에서는 그리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다. 이상설의 사돈인 위당 안숙과 충남 홍성의 복암 이설도 상황은 마찬가지이다.

이라 생각합니다.

넷째, 발표문 마지막에 보면 정언보가 이법세와 관련한 글 「치재 어른 장사지낸 다음 날 짓다」, 「치재 이공 광지명 뒤에 적다」 두 편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법세가 현실적으로 타협한 인물인데, 정언보가 칠언 58운의 간 시를 남긴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선생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⁴¹⁾

마지막으로 치재 이법세가 이상설과의 친분이 있었다고 하였는데 그럼 이상설의 사돈인 위당 안숙과 관련한 글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발표를 듣고 제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한 질문이니 양해를 바랍니다.

41) 「치재 이공 광지명 뒤에 적다」를 보면 이법세와 관련한 내용은 거의 없고 사실 관계만 적고 있다.

동아시아한문학연구소
2025년도 8월 학술회의 발표집

유림 독립운동가 연구의 단초

발행일 : 2025년 08월 08일

발행처 : 동아시아한문학연구소
